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올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 한국 → 미국 → 한국 → 멕시코... 다시 한국으로

### SPECIAL STORY

#### 추방 입양인 신송혁씨 비극 계속

2016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됐던 한인입양아 출신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성혁·사진)씨가 멕시코를 거쳐 다시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랩서는 한국으로 추방됐으나 2021년 멕시코로 이주했다.

오래근주에 남겨둔 두 딸과 더 가까운 곳에서 머물고 싶어서 멕시코로 이주했던 것이다.

또한 당시 뉴욕에 머물던 여자친구와 더 자주 만나고 싶어 멕시코 이주를 결심했다.

크랩서는 작년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 평택으로 다시 이주했으나, 한국에서 재택 근무를 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해고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랩서는 미국에서 이발사와 자동차 바디샵 보험 견적인 등으로 일했으나 멕시코에 거주할 때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 수제 스니커즈를 만들어왔다.



그의 여자친구는 미국 대기업 인사 부서에서 일했다. 크랩서의 소셜미디어 친구들은 크랩서와 여자친구에게 적합한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크랩서는 추방위기에 봉착한 한인 입양아 3만명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크랩서는 세 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37년 만인 지난 2016년 추방됐다.

양부모의 아동학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로 노숙 생활

에 내몰렸던 크랩서는 성인이 돼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크랩서의 과거 경범죄 전과까지 문제가 돼 미국에서 추방됐는데, 크랩서 측은 과거 홀트와 정부가 입양 절차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으나 2심에서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시행 중으로, 입양 당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

인 3만명도 잠재적 추방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한인 입양아를 돕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인 입양아가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시골 마을에 입양을 갔으나 마을에서 동양인을 찾아볼 수도 없어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모든 혼란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크랩서의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본래 이름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됐다.

고아 호적이 있으면 입양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하는 ‘대리 입양’도 위법적이지만, 한국 사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입양단체는 입양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 수수료 경쟁에 매몰돼 서류조작을 일삼았으며 입양아가 현지에서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

김옥재 기자

## 목표는 16% 감축

### 연방공무원 2만명 명퇴 신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방인사처(OPM)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2만명 정도가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응했다”고 밝혔다.

OPM은 지난달 28일 200만명 이상의 연방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월6일 시한으로 명예퇴직 신청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에 응할 경우 9월 30일까지 급여와 원격근무를 포함한 각종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10월 1일 퇴직하는 조건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2만명은 이메일 수신자의 1%에 정도에 불과하다.

백악관 측은 전체 연방공무원의 10%, 즉 20만명 퇴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신청 시한 2월6일이 지나면 2차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목표치 20만명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연방공무원의 자발적인 퇴직 뿐만 아니라 연방기관 전체를 폐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연방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방국제개발처(USAID)가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USAID와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사례를 본다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PM은 명예퇴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전면 동결한 상태다.

연간 연방정부 퇴직률은 전체 공무원의 6%에 달하기 때문에 신규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 연방공무원 감축률은 16%에 이르게 된다.

김윤미 기자

## 한인들 “출생시민권 폐지 적절”

### 지난 21~29일 본지 여론조사 원정출산 문제 근절 주장도

미주 한인들 대부분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집행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인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 반발한 4개 주가 연방법원 시애틀 지법에 집행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임시로 14일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했지만,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은 거세다.

본지는 미주 중영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에서 행정명령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1022명이 참가했는데, 응답자 중 82.7%(845명)가 출생 시민

권 폐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는 답은 15.1%(154명)에 그쳤다.

여론조사 참가자의 47%가 60~70대였으며, 46%는 40~50대였다. 또한, 응답자의 80.4%가 시민권자였고, 17.7%는 영주권자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97%)가 미국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응답자들 상당수는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속지주의를 재고할 시점이

됐다”며 “원정 출산처럼 불법 체류자들이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세금을 퍼주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응답자들은 “이미 헌법에 명기되어 지켜온 규정인데,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의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명,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폐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라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 연방공무원 명퇴 고용 보장 못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6일(목)까지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9월말까지 임금과 원경력무 등 각종 배니핏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상당수의 전문가가 고개를 찻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 고용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카밀라 맥키니는 “연방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전했다.

맥키니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인력 감축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구조조정도 세금이 소요되는 일이기



에 연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도록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면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직 시스템 보호 위원회(MSPB)”라고 밝혔다.

맥키니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권 충성도를 기반으로 퇴출 여부를 가린다면 커다란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은 노조에 소속돼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원경력무 중인 공무원 대부분도 단체협약에서 원경력무 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엄격한 해고 등의 요건으로

보호받고 있다.

맥키니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당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무원은 해고 조치에 불복해 MSPB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기한은 3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맥키니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가능성이 워낙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들이 MSPB를 없애거나 이 곳의 직원들마저 대량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 워싱턴 지역 단신

### 페어팩스 카지노 법안 VA 상원 통과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4일 오후 페어팩스 카운티 카지노 허용법안을 24대 16로 가결했다.

10일 예정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하원 절충과정과 주지사 서명을 마치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승인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이 법안은 스콧 서로벨 상원다수당 대표와 데이브 마스넨 상원의원

등 북버지니아 지역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페어팩스 카운티가 3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해 해셔라도 카지노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페어팩스 카운티가 카지노를 허용하면 매년 세금 수입 1억5500만 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

### “FBI 본부 이전 잘못됐다”

연방조달청(GSA) 감사관실이 2023년 본부이전 실사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입지의 이전비용이 크게 과장돼 있었다.

버지니아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FBI 본부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입지로 옮겨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 재검토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이전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기존 본부 리모델링을 밀어부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FBI 본부 이전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박동우 기자

## 기업들 다양성 정책 폐지 바람 아태계 직장인, 호소할 곳 없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면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들이 차별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태계 비영리단체 ‘스톱AAPI헤이트’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아시안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창구가 사내 DEI 담당자”라며 “연방정부의 DEI 프로그램 금지에 AAPI 노동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톱AAPI헤이트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태계 노동자의 49%가 위법성이 있는 차별 또는 불공정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미주한인위원회(CKA)는 한국의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1년부터 구조적 인종차별과 편견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DEI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지만,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지 마땅한 대책



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KA 대표적인 전국 단위 한인 권익단체다.

연방정부 압박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속속 사내 다양성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1년 발표한 DEI 행정명령과 린든 존슨 전 행정부의 1965년 차별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2일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상장 회사, 비영리단체, 대학, 재단이 시행 중인 DEI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관련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윌마트, 메타 등 일부 기업들은 보수단체와 주주들로부터 다양성 프로그램 중단 요구를 받고 DEI 프로그램 축

소 방침을 발표했다.

DEI 정책이 역차별 빌미가 돼 법적 소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미국평등권연합(AAER)으로부터 흑인여성 소유의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지불했다.

AAER은 2023년 ‘어퍼머티브 액션’ 위험 소송을 주도한 단체로 유색 인종, 성소수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도 문제삼았다.

각종 소수인종 대상 기숙사, 학비 지원 프로그램 역시 보수진영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잉 등 워싱턴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DEI 정책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연방 법무부가 민간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DEI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하진 않더라도 DEI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기업도 많다.

김윤미 기자

## 체포 두려워 푸드뱅크도 못온다

트럼프 취임 이후 1/3로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이민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이민자들이 체포와 추방에 대한 두려움 탓에 음식 지원 단체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음식구호단체 ‘더 시티 오브 라이트 푸드팬트리’는 “음식을 얻으러 오는 이들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를 운영하는 압둘 시세이 목사는 “우리는 이름도 주소도 아무 것도 묻지 않지만,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걸 두려워하는 이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급식소 앞 주차장에는 보통 350여대의 차량이 줄을 서게 마련이지만, 최근 2주 사이에는 100대 미만으로 줄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급식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세이 목사는 “불법이민자 가정이 보통 일주일 단위로 구호식품을 받아가는데, 2주 이상 여분의 음식을 구하지 못한다면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라며 안타까워 했다.

구호단체를 돕고 있는 루이스 폴리 변호사는 “과거 이민단속이 강화됐을 때 불법이민자들이 공공장소나 쇼핑센터, 직장 등을 기피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구호단체조차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그만큼 이민자들의 공포가 크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6일(목)	48~40	9일(일)	51~29
7일(금)	53~29	10일(월)	43~30
8일(토)	36~35	11일(화)	34~28

2월 5일(수) 38~2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The Centers for Advanced Orthopaedics**  
The Orthopaedic Foot & Ankle Center

#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 당뇨병 발 관리
- 발 및 발목 골절
- 망치 발가락
- 당뇨 신발
- 상처 치료
- 건막류
- 기능성 발 보조기
- 족저근막염
- 사마귀 및 궤양
- 관절염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예약 문의 703.394.4818**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dc.com](http://www.footankledc.com)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 다음은 교육부 해체, 공무원 3100명

### USAID-CFPB 폐쇄 이후 국제기구 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은 연방국제개발처(USAID)와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치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연방기관을 폐지할 계획이다.

연방교육부는 미국 보수진영의 공공의 적으로 불린다.

백악관은 교육부를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중인 행정명령은 특정 연방정부 기관 폐쇄를 열거하지 않고, 명기된 필수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종료하거나 이전, 혹은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DC 사우스웨스트 메릴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연방교육부 본부에는 약 400여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워싱턴지역 주민이다. 연방교육부 총 고용인원은 3100명이다. 연방효율성부(DOGE)도 연방교육부를 타겟으로 설정한 상태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도움을 받아 연방교육부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마스 매시 연방하원의원(공화,켄터키)이 지난 3일(화)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 연방교육부를 2026회계연도말(2026년9월30일)까지 폐지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최종 성사되기 전에 행정명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연방교육부의 권한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수진영은 오래 전부터 연

방교육부를 '악마의 소굴'로 낙인찍었다. 연방교육부가 각종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실시하며 보수진영을 조롱해왔다는 것이다.

워싱턴DC에 위치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작년 6월 작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도 연방교육부 폐지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올려놓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연방교육부가 주정부와 지역정부 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권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해왔다.

보수적인 지역 교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성소수자 보호정책을 폐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3일 USAID와 CFPB에 이어 4일 연방교육부 폐지를 공언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탈퇴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김옥채 기자

##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관람용 무료 버스 운영 확대

대한제국공사관이 방문 편의를 위해 무료 버스 운행 횟수를 크게 늘린다.

한국정부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찾아가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버스 운영을 기존보다 늘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외동포뿐 아니라 한국어를 수강하는 중고교 학생들이 공사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이를 위해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버지니아 한인회,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 협의회, 한국어채택학교 교사협의회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워싱턴한국문화원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202-844-3304 김근영

김윤미 기자



지난해 워싱턴한국학교 소속 학생들의 주말 공사관 탐방 모습

## VA 28번도로 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 기집행 예산 653만달러만 날려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미 결정했던 28번 도로(센터빌 로드) 우회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백지화하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28번 도로의 정체 해소를 위해 고드윈 드라이브부터 블린 스트림 로드까지 3.5마일 구간에 4차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미 2020년 표결을

통해 승인했으나, 현재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많은 주택과 상가를 공공수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카운티 교통국은 "우회도로 대신 비용효율성이 뛰어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버지니아 주정부 기관인 북버지니아교통국(NVTA)을 통해 이미 653만7306달러를 지원받아 우회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했

다. NVTA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며 "지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28번 우회도로 프로젝트와 별개로 페어팩스 카운티 센터빌부터 매나사스 파크 시티에 이르는 14마일 구간에 걸쳐 차선 증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차에 걸쳐 예정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 매나사스 시티와 요크셔 지역의 1.75마일 보행자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 분노, 불안, 공포.....

버지니아 라운던 카운티에 거주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라운던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3일(화) 개최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수백여명의 연방공무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입장하지 못한 이들도 2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 조직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줄리아 자비스는 "연방효율성부(DOGE)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엘론 머스크는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한 남성은 "DOGE가 연방정부 기

관에 들어가 허가도 받지 않은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주장했다. 역시 이름을 요구한 또 다른 여성은 "우리 연방공무원들은 최근 2주 동안 매일 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을 후원한 수하스 수브라마니암 연방하원의원(민주,VA10 지구)은 "연방정부가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9월말까지 일한 후 10월 퇴직 제안을 하고 있으나 믿을 수 없다"면서 "연방공무원들은 신뢰할 수 없는 퇴직 프로그램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브라마니암 의원은 "연방공무원들이 단결해서 저항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항해야 한다"고 부추겼다.

김옥채 기자

## 리치몬드-델마바 지역 순회영사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2월8일 버지니아 리치몬드, 2월15일 메릴랜드

델마바 지역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리치몬드는 8일

정오부터 3시까지 주예수교회(10201 Robious Rd, North Chesterfield, VA 23235)에서, 델마바 지역은 15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7841 Rockawalkin Rd, Hebron MD 21830에서 진행된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SNU ISP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2025 여름방학,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우수한 서울대 교수진 및 외국대학 해외초빙 교수진의 강의를 듣고 학점 취득을 비롯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최고의 기회**

**기간** 2025. 6. 23(월) ~ 7. 26(토) <5주>

**대상**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학에 합격한 예비 대학생

**교과목** 인문, 사회, 경영, 경제, 공학, 한국어교육 등 40여개 과목(문화체험 및 실습 포함)

**강의언어** 영어(과정 완료 시 이수증 및 영문 성적표 발급)

**장학혜택**

- 조기등록(수업료 20% 할인/4월 6일 전),
-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전공자(수업료 20% 할인)
- 교환학생 협정 체결 대학(수업료 10% 할인)
- 재등록자, 동문자녀, 형제자매 동반 등록자(수업료 20% 할인)

**2025 하계강좌 세부 일정**

일정	내용
4월 6일	조기등록 마감
5월 1일	지원신청 마감
5월 6일	비용납부 마감
6월 25일	개회식 <기숙사 체크인(6월 23~24일)>
6월 25-26일	오리엔테이션 · 환영이벤트
7월 23일	수업 종료 및 시험
7월 25일	폐회식 <기숙사 체크아웃(7월 26일)>

**2025 하계강좌 비용**

구분	금액(W)	금액(\$)	비고	
필수	신청료	200,000	→ 140	
	수업료	1,200,000	→ 830	1 course (2 credits)
		1,800,000	→ 1,240	1 course (3 credits)
		2,400,000	→ 1,650	2 courses (4 credits)
선택	2,790,000	→ 1,910	2 courses (5 credits)	
	3,348,000	→ 2,290	2~3 courses (up to 9 credits)	
	현장체험 기숙사	300,000 1,100,000	→ 210 → 760	— Dormitory Lodging (No Meal)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SNU ISP website  
<https://summer.snu.ac.kr>

**문의** 이메일 : [summer@snu.ac.kr](mailto:summer@snu.ac.kr)  
전화: +82-2-880-4449

\*USD 금액은 참고용으로 비용 납부는 원화금액기준으로 진행

# 연이은 항공기 사고 ... 탑승해도 정말 안전할까

## 2024 IATA 안전 보고서

운항 100만편당 사고 1.19건  
사고 시 대형 참사 ... 위급상황 대비

워싱턴DC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등 최근 여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제는 비행기 타기 겁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여객기를 타는 건 정말 위험한 걸까?

통계상으로 보면 여객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비락을 맞을 확률과 비슷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보다 20배 이상 낮다. 여객기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안전 규정 강화로 안전성을 높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객기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국과 항공사는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여객기를 탈 때 불안을 느낀다면 다양한 항공 안전 정보를 사전에 찾아보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객기 사고 확률은 각종 통계마다 다르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만은 공통적이다. 기관들의 통계를 종합하면 여객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000만분의 1 이상으로 비락에 맞을 확률인 최소 100만분의 1 수준보다 훨씬 낮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만명이 이상 숨지는 자동차 사고보다 여객기가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로만 보면 실제 비행기를 타고 사고를 당할 확률보다 비행기에서 내려 승용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를 가다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은 셈이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통계학과 야닐드 바넷 교수 등이 항공운송경영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8~2022년 전 세계에서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1370만명당 1명 수준으로 2008~2017년 790만명당 1명에서 크게 개선됐다. 매년 여객기를 이용한 여행의 사망 위험이 줄어들어 10년마다 사망 가능성이 2배 낮아지는 추세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2024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290만편이 운항했다. 모든 항공사의 100만편당 사고율은 1.19건, IATA 회원 항공사의 100만편당 사고율은 0.73건이었다. 이 기간 매년 평균 사고는 38건이었고 이 가운데 치명적인 대형 사고는 5건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위험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0만편당 평균 0.11%, IATA 회원 항공사의 경우 0.04%이었다. <표 참조>

2023년에는 3770만여편이 운항한 가운데 사고는 30건에 사망 사고 1건(프로펠러기), 사망자 72명이었다. 100만편당 전체 사고율은 0.80건으로 2022년 1.30건보다 38.5% 감소했다. 사망 사고 위험률은 100만회 비행당 0.03%로 매일 항공기를 탑승하더라도 치명적 사고를 경험하기까지는 10만3239년이 걸리는 수준이다.

미국에서 10억명 기준 km당 사망자 수는 항공기가 0.07명으로 가장 낮았고 철도(0.43명), 선박(3.18명), 자동차(7.28명)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 항공 사고 건수나 항공 안전 등급도 참고할만하다.



지난달 29일 밤 워싱턴DC 레이건 워싱턴 국립 공항 인근 상공에서 블랙 호크 헬기와 충돌 후 포도 맥강에 추락한 아메리칸 이글 5342편 잔해 모습.

194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여객기 사고 건수를 보면 여객기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미국이 870건으로 최다였고 러시아(544건), 브라질(193건), 캐나다(191건), 콜롬비아(185건), 영국(110건), 인도네시아(106건), 프랑스(105건) 순이었다.

연방항공청(FAA)은 국가별 항공 안전 평가(IASA) 등급을 1, 2등급으로 나눠 2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 좌석 공유 금지, 운항 증편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한다.

가장 붐비는 국제노선이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항공 정보 제공업체 OAG는 2024년 가장 붐빈 국제노선으로 678만여석을 기록한 홍콩-대만 노선을 꼽았다. 이어 이집트 카이로-사우디아라비아 제나 노선(546만여석), 인천-나리타 노선(541만여석) 순이었다.

항공 안전성 평가 사이트인 에어라인레이팅스닷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를 선정했는데 에어뉴질랜드가 칸타스항공을 제치고 1위였다. 이어 캐

## 2024 IATA 연례 안전 보고서 주요 내용

연도	2023	2022	5년 평균 (2019~2023)
전체 항공사 사고율 (운항 100만편당 사고 건수)	0.80 (126만편당 1건)	1.30 (77만편당 1건)	1.19 (88만편당 1건)
IATA회원 항공사 사고율	0.77 (130만편당 1건)	0.58 (172만편당 1건)	0.73 (140만편당 1건)
총 사고건수	30	42	38
사망 사고건수	1(프로펠러기)	5(제트기 1건, 프로펠러기 4건)	5
사망자	72	158	143
전체 항공사 사망률	0.03	0.11	0.11
IATA회원 항공사 사망률	0.00	0.02	0.04
전체 운항편수	3770만편	3220만편	3290만편

자료: IATA

세이퍼시픽,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에티오피아항공, 전일본공수, 에바항공 순이었다. 한국 국적기로는 대한항공이 안전한 항공사 8위였다.

이 평가는 항공사의 중대 사건이나 최근 사망 사고, 조종사 훈련 평가, 항공기 연식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안전도를 평가한 것으로 조류 충돌이나 난기류 고장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했다.

가장 안전한 LCC는 홍콩 익스프레스가 1위였고 젯스타, 라이언에어, 이지젯, 프린티어항공, 에어아시아, 위즈에어, 비엠펙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이 뒤를 이었다. 비행기 사고 원인의 과반은 조종사 과실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여객기 사고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급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비상 안 내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 승무원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훈련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인 판단 보다는 승무원의 안내를 우선해야 한다.

이착륙 시 및 비행 중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필요하며 안전벨트는 단단히 고정해야 비행기 급강하 시 몸이 튕겨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객기 탑승 시에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상구는 일반적으로 양쪽 날개 근처와 앞뒤에 있다.

브레이스 포지션도 중요하게 좌석에 앉아 머리를 무릎 사이로 숙이고 팔로 머리를 감싸는 자세를 말한다. 이는 여객기 비상 착륙 시 충격으로 인한 부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FAA 등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 시 동체 꼬리 부분에 앉은 승객의 생존율이 10~15% 더 높다고 하지만 사고 유형이 워낙 다양해 좌석별 안전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항공기가 구조물과 정면충돌하거나 추락할 경우 먼저 부딪히는 기체 앞부분에 충격이 집중되지만, 엔진이나 동체 화재 시 꼬리 칸을 향해 불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객기 사고의 안전성은 좌석 배치보다는 그때그때의 사고유형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이 항공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LA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드디어 착공

숙원사업 17년 만에 결실  
올림픽과 노먼디 교차로

한인사회 숙원 사업인 LA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마침내 착공된다. 지난 2008년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는 중단과 부활을 수차례 반복해오다 1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타운을 관할하는 LA시의회 10지구 사무실 관계자와 이창엽 전 LA한인상공회이사회 회장, 박윤숙 화랑 청소년재단 총재 등은 3일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바드와 노먼디 애비뉴 교차로의 다울정 옆에 아치형 LED 게이트를 세우는 프로젝트가 한 달 내로 첫 삽을 뜨게



LA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조감도.

[JFAK 홈페이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LANI(Los

Angeles Neighborhood Initiative) 측과 게이트웨이 착공 관련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현재 확보된 예산 규모는 300만 달러로, 이미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도 시작했다고 이 전 회장은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됐던 마당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해당 예산이 이번 사업으로 옮겨졌지만 주관 단체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그동안 10지구 사무실에서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구체적인 착공 일정 등은 10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곧 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게이트웨이 설치 장소의 전봇대를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이후 다울정 옆에 아치형 LED 게이트가 세워질 예정이며, 완공되면 한인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웨이 디자인은 지난 2022년 엘리스 김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JFAK(John Friedman and Alice Kimm)사가 맡았다. JFAK은 칼텍 항공연구소 건물과 LAPD 경찰운송센터 등을 설계한 바 있다. 아치형 형태 LED로 제작될 게이트웨이는 완공 후에는 전기로 납부 등을 맡을 관리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화랑 청소년재단 측이 일단 관리 기관으로 나설 전망이다. 박윤숙 총재는 "그동안 일부 한인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해왔다"며 "우리 화랑 측도 매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며 도왔고, 이제는 착공이 결정된 만큼 한인사회가 모두 나서서 향후 관리 비용 등을 함께 조성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10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올해 한인 축제 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지지부진하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10월 LA 시의회가 사업 예산 지출 안을 가결하면서 살아났지만, 이후 마크 리들러-토머스 당시 LA 10지구 시의원이 기소되면서 중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김경준 기자

## 실내 골프 연습장

## 버지니아 최고의 스크린골프 시설 완비!!

GOLF TRAINING REVOLUTION

# 채틀리 GTR

• 인도어 골프 • 실내 연습장 • 스크린 골프 • 골프레슨

깨끗한 최첨단 시설에서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세요!

## 703-817-2130

OPEN HOURS

1월~3월까지

월~금 10:00AM~10:00PM | 토~일 8:00AM~10:00PM

3656 Centerview Dr., Suite 6, Chantilly, VA 20151 (채틀리 롯데 마트에서 1분 거리)

# “미국 경제에 이민자 중요하다”

### 곳곳서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시위

LA 다운타운에서 불법 체류자 추방 조치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이틀째 벌어지고 있다.

‘이민자 없는 날’을 선언한 이민 단체들과 수백 명 규모의 시위대는 지난 2일과 3일 LA 연방법원 인근과 101 프리웨이에서 행진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시위는 LA뿐만 아니라 타 도시로도 확산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청사가 있는 샌타애나에서도 지난 2일 시위대 150여 명이 샌타애나 중심가인 5가와 로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당국의 추방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백 시코인은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먹여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가 3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렸다. 1000여명의 시위대는 오전 11시쯤 LA시청에 집결해 101 프리웨이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클립드 닷컴 아래까지 행진했다. 이날 추방 반대 시위는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로이터]

살리는 손을 물지 마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노스할리우드에서도 3일 오전 시위대가 행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이민자 없이 미국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며 추가 시위도 예고했다.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시위를 계기로 정기적인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성기자

# 가주 불법체류 대학생들 불안

### 법률 센터 예약 수 개월 밀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 이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지역 대학 학생들의 법률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가주 대학들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캠퍼터스는 3일, 가주 내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가족 내에서 서로 신분이 다른 대학생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UC와 캘스테이트(CSU),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는 현

재 법률 지원 기관인 ‘드림 리소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 5년간 5220만 달러를 투입해 드림 리소스 센터의 활동을 돕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신청 보조, 이민 법률 상담소 연결, 정신 건강 상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 리소스 센터 관계자들은 비영리 법률 단체 등과 협업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 수요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최근 무료 상담 일정이 몇 달 동안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과 가족의 추방 위험을 두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기자

# 이상기후에...트럼프까지 ‘밥상’ 뒤엎나

### 원두 95% 상승 등 농산물값 들쭉 관세 폭탄 터지며 기름 끼얹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뜨린 ‘관세 폭탄’의 화염이 국제 농산물 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커피 원두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밀·대두 등 곡물 가격도 치솟았다. 이상 기후로 식재료 물가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푸드+인플레이션)’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3일 뉴욕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지난달 31일 파운드(0.45kg)당 3.78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1.94달러)보다 94.8% 올라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영국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로부스타 원두는 1당 3168달러에서 5694달러로 79.7% 급등했다. 아라비카는 카페 등에 주로 납품되고, 로부스타는 인스턴트 커피의 원료로 쓰인다. 두 원두 가격은 국제 커피 가격을 결정하는 벤치마크(기준점) 역할을 한다.



초콜릿과 같은 주요 기호식품의 원재료 가격도 커피와 함께 상승했다. 1년 새 국내 코코아 선물 가격은 131.2%, 오렌지 주스 원액은 31.6% 올랐다. 다른 식품 원자재 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곡물 등 식공(대두)은 연초보다 4.5% 상승한 부셀(27.2kg)당 10.44달러, 밀(소맥)도 연초보다 3.8% 오른 부셀당 5.67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푸드플레이션에 처음 불을 지핀 건 폭염 등 이상기후다. 아라비카 원두의 최대 생산지인 브라질은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 부진에 빠졌다. 로부스타 원두 주 생산지는 베트남인데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생산

량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콜롬비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지만, 이후 커피 원두값은 치솟았고 역대 최고가로 올라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산 상품에 25%,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푸드플레이션이 가속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국내 농산물 수입액(1959억 달러)의 44%(860억 달러)를 멕시코와 캐나다가 차지한다. 앞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내년엔 0.25%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로 영향이 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는 어려워진다.

# 한인 여성 글로벌 제약사 대표 됐다

### 다케다제약, 줄리 김 선임

한인 여성이 글로벌 제약사 대표(CEO)에 선임됐다.

일본 다케다제약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줄리 김(54·사진) 현 미국사업부 사장을 크리스토프 웨버 현 대표의 후임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웨버 대표는 내년 6월 퇴임한다.

244년 역사의 다케다제약에서 여성이 대표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유리천장을 깬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 차기 대표는 30년 이상 헬스케어 업계에서 활약해온 글로벌 리더로 2019년 다케다제약에 합류 후 혈장 유래 치료제(PDT) 사업부 사장을 역임했다. 한국 서울 태생인 김 차기 대표는 어린 시절 클리블랜드로 이주 후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졸업,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 MBA를 취득했으며, 현재 가족과 함께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다.

박익희기자

# 거버 유아 치아발육제품 리콜

아기 식품 제조업체 거버가 질식 위험 가능성으로 식용 유아 치아발육 제품인 ‘수스 앤 츄(Sooth N Chew-사진)’를 리콜한다.

거버는 지난달 31일 일부 소비자들이 질식 위험 관련 불만을 접수하자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유아 치아발육 제품은 아기가 치아



가 나면서 가려움이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틱형 스낵 혹은

실리콘 스틱이다.

리콜 대상은 식용 제품으로 6개월 이상 유아용 딸기, 사과 및 바나나 맛이다. 현재 식품의약품(FDA)과 협력해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은영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락조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편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 충격 주고 실속 챙긴뒤 타협...“트럼프에 관세는 거래의 기술”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부과 하루 전 트럼프, 양국 정상과 통화 뒤 유예 미국 국경 보호 인력 배치 끌어내 '충격·공포' 전술로 원하는 것 얻어



아이스하키 스틱 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과 캐나다 팀이 참여한 2024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우승한 미국의 플로리다 팬서스와 축하연을 열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에게 관세는 ‘거래의 기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 유예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미 언론과 월가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4일 자정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용 시점을 하루 앞두고 깜짝 반전이 일어났다. 트럼프와 당사국 정상 간 통화에서 막판 타협안이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쥐스텔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잇따라 통화한 뒤 관세 유예 결정을 공개하며 그 대가로 얻어낸 결과물을 전리품인 듯 열거했다. 먼저 트럼

프는 “멕시코는 국경에 군인 1만 명을 즉시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좀비 마약)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캐나다로부터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약 1조 9000억원) 투입 ▶국경 보호를 위한 인력 1만 명 배치 ▶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전담하는 ‘펜타닐 차르’ 설치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알렸다.

트럼프 특유의 ‘충격과 공포’ 전술이

양국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일단 관을 크게 흔들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해놓고 지렛대를 활용해 최대한 몰아붙인 뒤 막판 빅딜로 원하는 것을 챙기는 협상 전술을 즐겨 왔다.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가이던 1987년 자신만의 협상 전술을 소개한 책 『거래의 기술』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지렛대를 사용하라”

“언론을 이용하라”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등의 대목이 나온다.

트럼프의 이런 관세 유예 결정을 ‘무역전쟁 의지의 후퇴’로 읽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다.

전문학적 무역 적자 시정과 감세 공약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수단으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는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는 “미국은 유럽 연합(EU)으로부터 3500억 달러(약 51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에는 BMW·벤츠·폭스바겐 등 수백만 대의 유럽 차가 들어오는데 그들은 우리 차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EU나 한국을 상대할 때는 멕시코·캐나다와는 다를 거란 전망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멕시코·캐나다나 미국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부대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리스크가 컸다”며 “그럴 위험이 달한 EU나 한국을 상대하는 더욱 거칠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관세 서로 때렸다, 트럼프·시진핑 리턴매치

중국, 텅스텐 등 반도체 광물도 통제

관세 장기화땀 한국 중간재 수출 타격 (대중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0% 추가 관세가 4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다. 다만 4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기로 한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전날 ‘불법 이민,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인력 1만 명 투입 등의 합의안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포함한 복합적 대응 조치로 맞불을 놓으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 싸움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 트럼프 1기 정부때 양국간 벌어졌던 관세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중국 재정부부는 이날 국무원 관세세

칙위원회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비(非)관세 보복 조치도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 주요 광물 사업자는 이날부터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통제 품목 중 텔루륨은 태양전지, 열전도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에 대한 조사에 들

어갔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은 토미 힐퍼거와 켈빈 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의류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기술 기업 일루미나 등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 역시 관세폭탄에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추악한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의 전형적 관행”이라며 WTO 제소 조치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24시간 내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국에 매우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4일 0시를 넘어선 시점까지 미·중 양쪽에서 관세 정책과 관련된 합의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이 공언해 온 대로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곧바로 대응하면서 세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됐다”고 했다.

당장 중국에 대한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노리고 진출해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불과 5% 정도만 최종 귀착지가 미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만일 대중국 10% 관세 부과가 지속한다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무관세로 수입하던 아

이폰을 포함한 여러 중국산 정보기술(IT)·가전 제품군의 미국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미국의 IT·가전 시장 위축은 중국 내 생산 감소 현상을 낳고, 이는 다시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부품 등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1330억 달러(약 195조원) 중 85.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다만 중국이 대미 관세 부과 시작일을 오는 10일로 한 것은 향후 수일간 미·중 담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동향 체크를 면밀히 하며 현지 진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베이징=김형구·신경진 특파원, 김원 기자

## 美백악관 “트럼프·시진핑 통화 일정 잡는 중...곧 이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대응 조치를 발표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통화 일정을 잡기 위한 작업이 진

행되고 있다고 백악관이 4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사진)은 이날 언론에 “그것(통화)은 매우 곧(very soon)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통화가 이날 중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관세에 대해 “중국이 지난 4년간 전례없는 수준의 펜타닐을 미국으로 보낸 것에 대한 보

복적 관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중국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으나 전날 이들 국가 정상과 통화 뒤 해당 관세는 한 달간 유예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도 “24시간 이내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백성호 공인회계사**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두근두근

# 2월의 선물박스

기간 1.30.2025-2.26.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2월 내 설치

쿠쿠 베스트 상품 특별 할인



제품 구매에 따른 쿠쿠만의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BRAND STORE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미국 51번째 주? “평생 미국산 안 산다”... 들끓는 캐나다

**강태화 특파원**  
캐나다 토론토 르포

“트럼프, 친구에게 이럴 순 없어 동맹 한국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 마트선 미국산 음료·주류 싹치워 입국장선 중국인 세관검사 강화도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이럴 순 없습니다. 이제 평생 미국 물건은 사지 않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통보했던 25%의 관세 부과 시점을 10시간가량 앞둔 3일(현지시간)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토론토의 한마트에서 만난 루시 제임스는 오렌지를 사려다 ‘미국 플로리다’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보고는 “빌어먹을 트럼프”라는 욕설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옆에 있던 노아 존스는 “미국산 싸구려 테이블 와인은 안 먹으면 그만”이라며 끼어들었다. 그는 “트럼프의 명칭한 결정으로 미국은 이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신뢰를 잃게 됐다”며 “두 나라 모두 타격을 입겠지만, 분명한 건 캐나다와 캐나다인들은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 노생큐”

캐나다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캐나다의 반발은 심상치 않았다. 특히 캐나다인들이 그동안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사실상 공동 운명체로 여겨왔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배신감이 강하게 표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기자에게 “한국에서 왔나”고 묻고는 “쥬스탱 트뤼도 총리가 연설에서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호소했지만 소용



**캐나다 ‘애국 마케팅’** 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상점가에 ‘100% 캐나다산’을 홍보하고 미국산 주류를 판매대에서 치우는 애국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강태화 특파원

없었다”며 “트럼프에게는 동맹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고도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캐나다 우선주의’를 자극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관세 부과를 앞뒀던 이날 토론토 곳곳엔 캐나다 국

기가 내걸렸고, 특히 자국 브랜드의 상징에는 일제히 “100% 캐나다산”이라는 홍보 문구가 세워졌다. 마트에선 미국 코카콜라와 펄시 등을 구석으로 밀어냈다.

캐나다 브랜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리암 톰슨은 기자에게 캐나다 국

모양의 스티커를 건네며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말에 대해 모두가 한마디로 ‘노생큐’라며 “이런 기류가 확대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캐나다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났고,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조치에 끌려가는 캐나다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관세 부과 시점을 30일 늦춘다는 결정이 나온 트뤼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전후로 확대됐다.

당초 관세 부과 시점이던 4일 0시부터 미국산 주류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던 온타리오주가 독점 운영하는 주류 매장 LCBO에선 철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날 오전 멕시코가 사실상 ‘백기 투항’하며 30일간의 관세 유예가 결정된 이후다. 점원 알리스터 바탈라는 “오후 정사 통화를 앞두고 작업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며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일부 시민들도 ‘미국산 불매’를 외치면서도 재고 부담 때문에 싸게 파는 미국 주류를 다량 구매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장에 미국산 주류 진열장 곳곳이 이미 비어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카트 가득 미국산 술을 끌어담아 옮기고 있었다.

이들을 바라본 엘리엇 리는 기자에게 “더 큰 문제는 경제적 구조”라고 했다. 그는 “외국 기업이 높은 세금을 물리는 캐나다에 공장을 지었던 이유가 캐나다와 미국의 무관세 혜택 때문이었다”며 “트럼프는 관세 때문에 외국 공장이 떠나면 캐나다가 엄청난 실업난을 안게 돼 버티기 어렵다는 약점을 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속 구조 때문에 미국에서 유입되는

총기류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펜타닐 유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펜타닐 차르’를 신설하고 조직범죄와 마약·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의 합동 타격부대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관세 유예를 위해 캐나다가 중국산 펜타닐의 유통 경로임을 자인한 셈이다.

### 트럼프에 끌려가는 캐나다 정부 비판도

이미 공항 업무는 중국인을 집중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날 토론토 국제공항 입국장 심사대 4곳 모두엔 중국계 세관원이 배치돼 있었고, 이들 창구 앞에는 중국인들만 긴 줄을 서서 심도 있는 입국 심사를 받았다.

반면에 비(非)중국 외국인 상당수는 창구로 가지 않고 간단한 질문만을 거쳐 입국이 허가됐다. 세관 직원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중국인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며 “중국계 직원이 집중된 트럼프의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준상 캐나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앙일보에 “캐나다가 정치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쉽게 흔들린 이유는 미국이 관세를 1년만 지속하더라도 사실상 붕괴될 수 있는 경제 종속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유예 결정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세가 반복적으로 협상의 무기로 사용될 거란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캐나다에 이미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투자금을 날리고 미국으로 거점을 옮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 트럼프 1기 대북라인 컴백... 국무부 ‘넘버3’에 후커 유력

(정무차관)

김정은과 대화 재개 염두에 둔 듯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엘리슨 후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사진)이 트럼프 2기 국무부의 정무차관으로 유력하게 부상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알렉스 워그 국무부 동아태 부

차관보로 임명된 케빈 김에 이어 후커까지 돌아오면 1기 때 북·미 협상 판을 짜던 핵심 인사들이 다시 진용을 갖추는 격이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후커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의 서열 3위인 정무차관 등 주요 요직에 기용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 출신으로 트럼프 1기에서 북핵 협상 관련 실무를 맡았다. 트럼프가 1기 북·미 협상 멤버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후커는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측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지난해 1월 중앙일보 인터뷰)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 현안을 총괄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는 마이클 디섬브레 전 주태국 미국 대사가 최종 후보군에 들었다고 한다.

당초 10명에 가까운 후보가 거론됐다가 최근 디섬브레 전 대사 단수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그는 트럼프 1기 때인 2020~2021년 태국 대사로 근무한 후 본업인 인수합병과 사모펀드 전문 변호

사로 복귀했다.

주한 미국 대사로는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꾸준히 마땅해 오르고 있다.

다만 주한 미국 대사를 직업 외교관을 보낼지, 정무직을 보낼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인선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박현주 기자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김경수, 이재명에 개헌 압박 “대통령 권력 줄여, 계엄 막아야”

김 “이 대표 나서 국민 불안 없애야” 여당 17일 개헌토론회,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무현(친노) 그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4일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주요영 국회 의장이 이끄는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이 대표가 안팎에서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 김경수(사진) 전 경남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탄핵의 종착지

는 이 땅에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 같은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으나,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가가 더 시급한 과제”라며 ▶대통령 권력 분산 ▶견제·균형 시스템 강화 ▶5·18 광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개헌 과제로 열거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함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한)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

북에 “대한민국 재설계가 필요하다. 낡고 무능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51대 49의 괴투성이 선거가 아니라 70대 30의 국민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면서 ▶계엄 폐지 또는 전시(戰時) 한정 ▶국민 행복추구권 구체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세종시 이전 등 자신의 개헌 구상을 열거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선 때 최소한의 개헌 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김동연 경기지사 등 일부 대선 주자와 원로들이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이 대표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으면서 당내 논의는 정체돼 있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친노 그룹까지 개헌을 얘기하는 상황에선 이 대표도 조만간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7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기’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현석·장서윤 기자



## 추경으로 ‘AI 대응’ 하자는 정치권 “엔비디아 GPU가 배달음식인가”

석달 전예산 심의엔 AI 신경도 안써 ‘답시크 쇼크’에 설익은 대책 쏟아내

석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여야는 본예산 심의 때 예비비·특별비 등을 놓고 격전을 벌이다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탄생시켰다. 당시 인공지능(AI) 같은 건 안중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추경경정 예산에 AI 예산을 넣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애초에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에 편성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편성 요건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답시크의 등장으로 AI 이슈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여야가 갑자기 AI 전사라도 된 양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추경을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양성 등에 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추경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매년 AI에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730조원을 쏟아붓는다. 중국 역시 수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강력한 AI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산물이 답시크다. 한국의 AI 관련 예산은 대략 미국의 14분의 1, 중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력 육성도 문제다. 최고의 인재가 의대로 향하는 구조적 난제를 두고 AI 산업이 성장할지는 의문이다.

야당도 다르지 않다. AI 발전을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모니를 부린 주체가 갑자기 돌변해 AI 추경을 밀어붙이니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그러면서 “5조원 이상의 AI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디에 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는 각계 논의를 거쳐겠다고 했다. 각론이 없는데 5조원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추경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들여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AI 전쟁의 핵심이 GPU라서다. 정부도 GPU 확보 계획을 앞당겼다. 국내 AI 전문가로 꼽히는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탄식한다.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추경한다고 해서 GPU를 당장 사들일 수 있나. 엔비디아 GPU가 무슨 주문하면 오는 배달음식인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 회의가 곧 열린다. 기왕 ‘AI 추경’이란 생경한 조합이 탄생했으니 당리당락을 떠나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AI·반도체 분야의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AI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한 R&D 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내년 이후의 예산까지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새겨들길 바란다.

세종=장원석 기자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4일 오후 제주시의 한 시민이 외투로 눈보라를 막으며 걸어가고 있다. [뉴스1]

## 서울 체감 -23도 극강 한파

북극 한기 유입, 주말까지 혹한

북극 한기의 유입으로 4일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했다.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5일 눈폭탄 수준의 폭설이 예고돼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5도를 기록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서울 중구 관측소에서는 오전 한때 체감온도가 -23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한낮에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12도 안팎에 머물렀다. 서울 동북권에는 울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이번 한파는 찬 공기의 통로가 한반도를 향해 열리면서 나타났다. 남쪽으로 흘러내려 온 북극 인근의 한기가 북서풍을 타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울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것이다. 한파의 기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5일과 6일에도 -12도

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람이 약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충남과 전라, 제주도를 중심으로 6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최대 15cm, 전라서는 20cm, 제주 산지는 30cm, 울릉도·독도는 40cm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상황이어서 차량이 고립되거나 구조물이 붕괴하는 등 폭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제주 삼각봉과 무주 설천봉은 1m가 넘는 적설을 기록했다.

특히, 5일 새벽부터는 시간당 3~5cm에 이르는 눈폭탄 수준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에는 중부 지방에도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에 서울 등 수도권에는 6일 오후부터 밤사이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천권필 기자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은 한곳에서

### 2024

### Return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주인

**상담원**  
심리 치료사 구함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니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rpk., #201  
 Annandale, VA 22003

Worldwide  
 월드와이드 버스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 봄날, 한스와 설레는 여행

## 고국의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1차 4/22(화)-5/2(금) 2차 10/15(수)-10/25(토)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 11일 \$2,990** 항공 불포함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 9일 \$2,390** 항공 불포함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최신 28인승 VIP 리무진버스**

제주도 최고호텔 신라호텔  
**전일정 5성급 딜럭스호텔**  
 (동대문 노보텔-스노캄 여수-소노캄거제-부산그랜드조선-라한경주-제주신라)

다채로운 지역별 특색이 담긴 전통 음식을 찾아가는 맛여행

##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5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2/7(금)-2/20(목) 남인도 스리랑카 13박14일	마감	조앤 한
2/11(화)-2/20(목) 이집트와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마감	데이빗 한
2/23(일)-3/3(월) 페루일주 8박9일	마감	재키 조
3/3(월)-3/17(월)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리오 데 차	마감	재키 조
3/7(금)-3/16(일)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추천	조앤 한
3/19(수)-3/29(토) 튀니지와 몰타 섬 여행 10박11일	추천	조앤 한
3/19(수)-3/26(수) 튀니지와 사하라 사막 7박8일	추천	\$2,890
3/25(화)-4/6(월) 일본 12박13일	마감	재키 조
4/9(수)-4/18(금)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남만의 동유럽 9박10일		\$3,490 세라 정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마감	애나 김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10박11일		\$2,990 인솔자
4/29(화)-5/9(금)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마감	\$3,590 세라 정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5/7(수)-5/16(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5/28(수)-6/9(월) 알프스 파노라마	마감	재키 조
6/3(화)-6/15(일)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코카서스3국 12박13일		\$4,390 조앤 한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마감	\$5,095 재키 조
7/1(화)-7/14(월) 북유럽+발틱 13박14일		\$6,595 조앤 한
7/12(토)-7/26(토) 백두산+서울시투어+일본북해도 14박15일	NEW	\$5,990
7/12(토)-7/15(화) 백두산 천지 관광 딜럭스 3박4일	NEW	\$799
(연길-도문-이도백학-백두산(서파, 북파),웅정)		재키 조
7/17(목)-7/25(금) 북해도의 대자연-신록여행 8박9일	NEW	\$4,500
(북해도-삿포로, 니세코,도야, 후라노)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항공포함	\$2,190 애나 김

8/1(금)-8/15(금) 아프리카 + 볼루 트레인 14박15일	마감	\$16,400
8/1(금)-8/13(수) 아프리카	마감	\$12,900 조앤 한
(케냐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8/1(금)-8/8(금) 아프리카 케냐 사파리 투어 7박8일	추천	\$5,950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8/4(월)-8/11(월)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
8/13(수)-8/19(화) 알래스카 6박7일	항공포함	\$3,090 세라 정
9/4(목)-9/12(금) 발칸 달마시아 투어 8박9일		\$3,590 세라 정
9/8(월)-9/21(일)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9/8(월)-9/17(수)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9/20(토)-9/28(금)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4,795 재키 조
10/7(화)-10/16(목)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동유럽 9박10일		\$3,490 애나 김
10/9(목)-10/19(일)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10/15(수)-10/25(토) 한국의 가을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6,495 재키 조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재키 조	
11/27(목)-11/30(일) 핑스기빙 코스타리카 3박4일		세라 정
12/1(월)-12/7(일) 쿠바 6박7일		\$2,987 조앤 한
12/6(토)-12/20(토)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4박15일	재키 조	\$6,590
12/8(월)-12/20(토)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여행자들의 천국~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 10일  
 카사블랑카/마라케쉬/와자르자트/메르조가/이프란/페즈/세프사우엔  
 3/7(금)-3/16(일) \$3,490 항공불포함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보는 낭만의  
**동유럽 5개국** 9박 10일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독일-학문의 도시 하이델베르크, 400년 역사의 도시 뮌헨  
 오스트리아-모차르트의 고향 길겐, 음악의 도시 비엔나  
 체코-동화속 마을 체스키크롬로프, 헝가리-아름다운 다뉴브 유람선이 있는 부다페스트  
 4/9(수)-4/18(금) \$3,490 항공불포함

**튀니지와 몰타 섬 여행** 10박 11일  
 아름다운 자중해 휴양도시에서 여유있는 휴식을 즐기고 신비로운 사하라 사막 체험까지  
 3/19(수)-3/29(토) \$3,790 항공불포함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금요일 출발가능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요일 출발가능 2/24,3/31 출발가능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요일 출발가능 3/5,3/15 출발가능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출발 4/14출발가능 \$1,350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 불포함  
 옐로스톤 3박4일  
 2025년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90 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5박6일 \$1,250 항공 불포함  
 2명이상 출발가능 월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http://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곽종근 “윤, 요원 아닌 의원 끌어내라고 말해”... 김용현 반박

〈전 특전사령관〉

곽 “당시 국회 본관엔 요원 없었다”  
무속인 “노상원, 배신할 군인 몰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빼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군 ‘요원’이었다던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을 4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한테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0시20분부터 35분 사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 맞다”며 “당시 시점에는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고 했다.

“요원을 빼내”란 지시도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이뤄졌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의 경우 12월 4일 오전 1~9시에 있던 707특임단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되물자, 곽 전 사령관이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뒤따라 입을 맞춘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유튜브에선 제가 작전 요원들을 빼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김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죠’라고 물어서, 두 가지가 사실이 맞다는 의미로 ‘맞다’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을 함께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즐겨 찾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선진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병도 민주당 의원이 “노 전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나”고 묻자, 이씨는 “수십 차례 올 때마다 사실 군인에 대한 사주를 많이 물어봤다. ‘나와 함께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다”고 답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이름을 갖고 왔다”며 “제가 ‘이분은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나중엔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경호처에서 계엄 전 날인 12월 2일 노씨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고 추궁했지만, 김 본부장은 즉답을 피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부하에게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확인해 보니 군 판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복명하지 않았다”며 “TV를 보니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 있었고,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주 찾았다는 점괘를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선진씨. 전민규 기자



## 공수처, 반쪽수사 끝 “이상민 사건, 검경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반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그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수사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이 같은 지침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고,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봉쇄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실패하며 직권남용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따라 처벌 역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한 방식을 이 전 장관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법리 검토 결과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 (수사 권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건 반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위법 수사로 판단해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역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정진우·김정민 기자

## 이재명, 중도층 표심 잡기... ‘상속세법 개정안’ 다시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상속세 개편’에 다시 속도를 낸다. 집값 상승으로 부과 대상이 늘어난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일환으로 읽힌다.

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2월 안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8월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쉽게 말해 현행법은 상속 재산이 10억원(5억원+5억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18억원(8억원+10억원) 이하까지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억원을 웃도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다고 상속세를 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획재정 위원회의 위원장과 소위원장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 의지가 없을 경우 우리가 주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를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 추진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18 전당대회 직후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배우자·일괄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게 도화선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표 상속세’로 불려왔다.

이는 상속세를 강화해 왔던 과거 민주당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졌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모든 행위에 세

금 부과) 도입돼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 민주당 개편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공제 규모 상향은 양측이 큰 차이가 없지만 최고세율(50%)을 유지하겠다는 민주당과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 차이가 컸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정책위 관계자)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는 중산층을 타깃팅한 감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2월 HOT 리스팅**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p><b>페어팩스 타운홈</b> 방3, 화2.5</p> <p><b>\$590,000</b></p>	<p><b>페어팩스 타운홈</b> 방3, 화2+2, 차고1</p> <p><b>\$750,000</b></p>	<p><b>센터빌 타운홈</b> 방3, 화2.5, 차고1</p> <p><b>\$590,000</b></p>	
<p><b>에난데일 새 타운홈</b> 방4, 화3.5, 차고2</p> <p><b>\$980,000</b></p>	<p><b>페어팩스 싱글홈</b> 방4, 화2.5, 차고2</p> <p><b>\$825,000</b></p>	<p><b>매매</b> <b>센터빌 타운홈</b> 방3, 화2, 차고2 안인마에서 5분거리</p> <p><b>\$625,000</b></p>	<p><b>임대</b> <b>비엔나 켈로스 로드 콘도</b> 방2, 화2, 차고2</p> <p><b>\$2,550</b></p>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노안 교정수술  
Refractive Surgery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mailto: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12·3 심야 통화의 진실... 윤·홍장원 헌재서 공방

(전 국정원 1차장)

홍 "윤, 싹 잡아들이라 말해" 증인 윤 "홍에 격려전화, 계엄과 무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여야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대면해 진실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검찰 공소장에도 적시된 "싹 다 잡아들이라"란 한마디가 현재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전 1차장은 12·3 계엄 당일 오후 10시53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를 지원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전 1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대상자인 목적어를 규정 안 해서 뭔가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하냐고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홍 전 장관 증인신문이 끝나자 발언 기회를 얻어 "격려 차원의 전화일 뿐 계엄과 무관한 얘기"라고 전면 부인했다.

반면에 홍 전 1차장은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오후 11시6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위치추적 요청 명단을 불러줘 메모했는데 다 받아적진 못했지만 14~16명 정도로 기억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반 정도 적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계엄 해제 이튿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사과를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다는 보고를 받아 '원장 부재중이니 잘 챙겨라'고 했고 이후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번 더 한 것"이라며 "방첩사 도와주란 이야기도 조 원장에게도 늘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탄약 계엄과 관련해 지시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인 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에게 직접 하지 차장에게 안 한다"며 거듭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탄핵부터 내란이니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어떤 정치적 문제'에 관한 조원장의 건의로 홍 차장을 해임한 이튿날인 12월 6일 홍 차장의 메모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비가 된 것"이라며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홍 전 1차장도 변론 종료 이후 재차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1차장에게, 그 시간에?"라고 반문했다. 당일 삼각통화의 다른 당사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홍 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통화해 정확한 통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정황상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합동수사단 인력 지원과 체포 대상 위치파악을 요청한 것은 시인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정치인 15명 정도를 체포할 건데 경찰에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적이 있다.

첫째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니 인력을 보내 달라는 것과 (정치인)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하면서다. 명단의 내용에 관해선 "제가 기억하는 것과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군 병력 투입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선거소송에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오고 국정원 점검 결과도 전산시스템이 많이 부실하다고 해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11월 29~30일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발의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얘기를 했다"고도 했다.

윤 "선거 엉터리 투표 많아 스크린 지시"

다만 자신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서관위 서버 압수 및 직원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은 장관 지시가 있으면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란 식으로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실제 서버 압수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압수한 게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또 "정치인을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등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으니, 받았으니 하면서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훌륭한 장군들 진술에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만 군인 몇 명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소화기를 맞고 후퇴하지 않았느냐" "실제 정치적 체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시도 및 체포 지시 의혹도 적극 부인했다.

군사법원에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내란 혐의 핵심 피의사실에 관해선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인했다. 여 전



4일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왼쪽 사진)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 헌법재판소]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14명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냐"는 질문엔 "형사재판 사항이라 진술하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합수본 제2수사단이 창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엔 "오래전부터 당연히 알던 사실이지만 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4일 오전 12시 38분쯤 부하들에게 우원식·이재명·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선 "증거 기록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가 내린 비상계엄이란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알기론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 일에도 직접 출석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해 수차례 반대를 직언했다"며 국회 문란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진우·여인형 "재판 중" 핵심답변 거부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사령관도



이날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맞고, 일부 충격적인 단어가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답하기 어렵다"며 "저의 형사재판에서 밝혀겠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대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군통수권자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 전문가라고 생각해 방송으로 발한 내용이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고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며 국회 문란의 의도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공관에서 예하 부대 사단장들과 저녁 약속까지 마쳤고, 관사에서 설거지하던 중에 (김용현 장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부대에 들어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도 TV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이 맞는지" "대통령이 통화로 4명이 한 명을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 사실관계 질문에 "형사재판 중이라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거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김정연·양수민·최서인 기자

## 반도체법 토론회 하루만에... 천명 "주 52시간 고치자" 진성준 "논의 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에 나서자 천명 중진 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다. 새로 제정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를 도입하자고 잇따라 찬성 의견을 내면서다.

정성호(5선) 의원은 4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데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한다"며 "(52시간 예

외 조항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지원(5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종사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으로 고치는 것이 딥시크(DeepSeek·중국의 인공지능 기업)형 혁신"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특정 산업의 연

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반도체 업계 주장에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고 옹호했다. 박범계(4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확실히 실용주의적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거듭었다.

구체적인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에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

가제도 조항(53조 제4항)을 가져와 "이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수행 방법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강보현 기자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동맹 맺나... '스타게이트' 논의

(트럼프가 띄운 5000억 달러 AI 프로젝트)

### 손정의 전격 방한해 두시간 만남 이재용도 '뉴삼성' 새 돌파구 필요

'이재용-손정의-샘 올트먼' 3자 인공 지능(AI) 회동이 서울에서 열렸다. 오픈AI의 소프트웨어(모델)와 소프트웨어의 자본에 삼성전자의 첨단 제조가 협력을 모색한다. 여기에 AI용 저전력 반도체 설계의 강자인 Arm도 동참해 '빅 3+1'이 협력 논의의 첫발을 땀다.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르네 하스 Arm CEO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만났다. 손 회장이 이날 전격 방한해 올트먼 CEO와 이 회장의 면담에 합류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Arm의 하스 CEO도 급히 합류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쯤 삼성전자 사옥에 나타난 손 회장은 기자들에게 "스타게이트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과 삼성과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대화 주제를 밝혔다. 두 시간가량 회동을 마치고 나와서는 "스타게이트, 모바일, AI 전략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계속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게이트는 미국 전역에 5000억 달러(약 720조원) 규모 AI 인프라 기술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올트먼이 만난 사람들 ▶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4일 방한해 국내의 업계 인사들을 만나 AI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고 ▶공이아 카카오프렌즈 대표와 만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다.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자사 업체 Arm의 르네 하스 CEO도 이날 이재용-손정의-올트먼 회동에 참석했다. [뉴스시스-뉴스]



21일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미국 백악관에서 공동 발표했다. 오픈AI와 소프트웨어가 기술·투자 양대 축을 맡고 오라클의 데이터·클라우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Arm의 반도체 설계가 서방 AI 진영으로 뭉치기로 했다.

그러나 반도체·하드웨어 첨단 제조 역량은 미국도 하루아침에 갖추기 어려운 데다, 미국 인텔은 휘청이고 있다. 스타게이트 수장(chairman)인 손 회장이 '잃어버린 퍼즐'을 찾듯 삼성을 전격 방문한 배경이다. 손 회장은 한국의 AI 경쟁력에 대해 "훌륭한 엔지니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날 회동에는 각 사의 절실함도 작

용했다. 오픈AI는 지난해 50억 달러(약 7조3000억원)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딥시크의 급부상으로 AI 기술력으로 추가 투자를 유지하는 동시에, AI 히트 상품으로 수익 창출 역량도 입증해야 한다.

이에 올트먼은 일본·한국·인도 등 세계 각국을 돌며 현지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 이날 오전 올트먼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만나 반도체, 데이터센터, AI에이전트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또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카카오의 기존 서비스에 오픈AI 기술을 적용하고, 향후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상장 대박(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투자 성과에 부침이 있었다. 최근 'AI로 판을 뒤집겠다'는 포부를 밝힌 손 회장은 Arm을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비장의 무기'로 삼고 있다. 저전력 반도체의 핵심 설계 자산(IP)을 보유한 Arm은 AI용 저전력 반도체 구현 기술로도 각광받고 있는데, 손 회장이 Arm을 통해 혁신적인 AI 반도체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다. 성공할 경우 모바일 칩 설계 최강자인 퀄컴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에서 '뉴

삼성'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달 신작 AI 폰 갤럭시 S25를 내놨지만,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전량 퀄컴의 칩을 썼다. 전작보다 AI 연산 능력이 높아졌지만 남의 기술에 상당 부분을 기댄, 뼈아픈 상황이다. 현재 삼성 모바일의 최대 협력사는 퀄컴이지만, Arm과 협력을 강화해 시스템 설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8년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겪으며 삼성전자는 투자·경영 판단이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글로벌 AI 협력에 첫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심서현·박해리·윤정민 기자

## 전세계 AI 고급인재 47%가 중국 출신인데... 한국은 2%

### 미국 '중국 AI인재 흡착외야' 총력전 한국, 처우 열악해 해외 유입도 적어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A사는 요즘 엔지니어에게 한국어 가르친다. 국내 인력이 부족해 동남아 출신 엔지니어를 채용했는데, 한국어 소통이 장벽이어서다. 국내 주요 반도체 학부·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출신 엔지니어도 소통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회사가 아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1월 '첨단 전문인력 비자'를 아십 차제 신설했다. 바이오·반도체·AI·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앙일보 취재 결과, 시행 2년이 지난 현재(2024년 말) 해당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해외 인재는 38명에 불과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이

'AI 인재 확보 전쟁'이라는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AI 인재를 흡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우수한 중국 출신 유학생들을 미국에 남길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이듬해, 미국이 항공우주국(NASA)을 발족한 역사의 대자부다.

문제는 한국이다. 어렵게 길러낸 AI 인재를 활용하지도, 그렇다고 해외 인재를 적극 수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AI 업계에서는 '딥시크 쇼크'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지원에 힘입은 풍부한 중국 AI 인력 양성은 이미 두드러져 있었다는 거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 마르코폴로의 '글로벌 AI 인재 추적'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20% 수준 AI 연구자 중 중국 출신은 2019년 29%에서

2022년 47%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 출신 우수 AI 연구자 비율은 20%에서 18%로 줄었다.

중국은 AI 인재 요람뿐 아니라 활동 지로도 급부상했다. 상위 20% AI 연구자가 활동하는 주요 국가를 보면, 중국 비중은 11%(2019년)→28%(2022년)로 늘어난 반면 미국은 59%→42%로 감소했다.

한국 출신 AI 고급 인재 비율은 2019년과 2022년 모두 2%로 제자리였고, AI 인재의 한국 활동 비율도 1~2%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회원국별 AI 인재 국가 이동 현황에서, 한국은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됐다.

있는 인재를 떠나는데, 해외에서 유입도 적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첨단 전문인력비자(E-7-S) 국적별·월별 체류 현황'에 따르면 해당 비자 관련이 열린 이래 최다 체류자는 70여 명이었고,

2024년 11월 현재 38명만 남았다. 국적별로 ▶미국 8명 ▶중국 8명 ▶인도 4명 ▶기타 18명이다.

당장 처우 경쟁력이 떨어진다. 2018년 국내 주요 IT 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한 B씨는 입사 4년 만에 미국 빅테크로 이직했다. 연봉이 2배 이상 차이 났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급여 비교 사이트 레벨스(level.fyi)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국가별 평균 연봉을 비교하면 결과 한국이 9900만원 수준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샌프란시스코) 평균 연봉(4억3000만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처우만 문제인 게 아니다. 국내 IT 대기업에서 AI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개발자 B씨는 "복지·연봉은 감수하더라도, 자율성과 조직문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은 신기술 도입 속도도, 새로운 방향 설정도 느리다는 거다.

업계에서 "정부에 컨트롤타워를 마

련해 장기적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중국은 철저한 지역별 역할 분담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있다. 베이징은 산학연구 융합 및 기술개발, 광둥성은 기초설비와 스마트 제조·AI 등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일본 AI 스타트업 사카나는 정부 지원 덕에 설립 1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프랑스의 대표 AI 기업 미스트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태섭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인재를 꾸준히 키운 뒤, 이들이 민간에 나가 될 수 있게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서현·이우림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474 Hampton Hill Ct, McLean, VA	2월6일 마켓에 나올 예정. 맥클린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일하게 수정이 있는 단지. Coming Soon 상태에서도 오피를 넘겼다. 사람이 있으나, 정식으로 마켓에 올릴 예정. 3년 전 약 13만불 이상 들어 집 Renovation 했음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마켓에 내놓은 날 좋은 오피 받아 바로 계약. 오픈하우스 취소, 셀러 So Happy. (SELL NEW) 1/21/2025 세틀먼트 예정
Fairfax, VA	위에 캘리포니아 사는 분 이 소개. 4명의 경쟁을 뚫고 득템. 이기는 오피 자신있음 (BUY)
10** Salt Meadow, McLean, VA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20일 내로 세틀먼트 완료 (BUY) 1/6/2025 세틀먼트 완료
McLean, VA	투자용 집이 나오면 소개해 달라고 한 캘리포니아 사는 분. 좋은 집이 나와 소개했더니 바로 구입. 바로 3년 렌트 연결. 1/3/2025 세틀먼트 (BUY)
McLean, VA	계약 후 10일 이내 세틀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4,250) 렌트하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간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SELL)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 McLean, VA (NEW)	3년	집 내부를 보지 않고 구입. 공실없이 바로 렌트. 구입/렌트 모두 에이전트 로리안 믿고 갈 렌트 투자용 집 사고 싶은 분 연락바람. 주재원이 출퇴근 한번 집 구입 후 바로 장기렌트 연결 자신있음
★ 887* Ashgrove House Ln, Vienna, VA	1+1년	새로 이민 오는 가족
★ 183* Clachan Ct, Vienna, VA	3년	주재원
★ 979*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원
★ 966*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원
★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McLean, VA	3년	주재원
★ 585* Rock Forest Ct, Centreville, VA	18개월	새로 이민 오는 가족
★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 외 30여개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VA 571.999.2755**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MD 301.775.2774**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우리말 바꾸기

감정노동과 사물 존칭

“문의하신 상품은 품질되었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이제 사라졌을까? 여전히 많이 쓰이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사물 존칭”이 퍼지게 된 것은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과정과 무관치 않다. 고객 만족을 서비스의 최고 가치로 삼으면서 마구 쓰인 측면이 있다. 우리말에서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어떤 행동을 공손히 요구할 때 “자리에 앉으실게요” 등과 같이 말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자신이 자리에 앉겠다는 것인지, 상대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것인지 모호한 표현이 돼 버린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한식의 고급화는 경험 너머의 체험



조원희 경제부 기자

왔던 조셉 리저우드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다. 호주인 셰프가 한식을 독창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안고 갔는데 오히려 기대를 뛰어넘었다.

증강현실(AR)을 통해서 식탁 위에 작은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뒤에 음식을 먹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지리산에서 셰프가 직접 채취했다는 개미를 동결건조해서 서빙 위에 얹어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한식은 다른 어떤 식당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서울에서 몇 군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다녀며 느꼈다. 한식의 고급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이미 아주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화되는 한식의 고급화는 올해 제임스 비어드 상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제임스 비어드 상은 요식업계의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권위 있는 상이다. 35년간 최고의 셰프나 레스토랑은 물론 바, 베이커리, 바텐더, 소믈리에, 조리 관련 서적 등에 상을 수여했다. 올

해 제임스 비어드 상에는 앞서 소개한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를 비롯해 한인 셰프가 12명이나 후보에 올랐다. 일식부터 베이커리까지 분야도 다양했고 하와이부터 오클라호마까지 지역도 다양했다.

이에 더해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레스토랑 사업가들도 후보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고급화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야말로 외식업계 전 분야에 걸쳐 한인들의 활약이 뛰어났다. 제임스 비어드 상에 한인 후보가 많은 것은 고급화된 한식이 국내 외식업계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식의 매력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특히나 한식의 고급화라는 ‘숙원사업’이 성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 고무적이다. 물론 한식이 더 발전해 나가려면 한식의 ‘근본’을 알고 있는 한인들의 지원과 비판도 필요하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도 ‘한식’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매력 없는 무국적 음식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인들도 고급화된 한식을 먹어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LA 지역에도 한식을 기반으로 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이 많다.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미식’이라는 취미를 즐겨보고 싶어졌다. 고급화된 한식당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다. 한식을 먹지 않고 ‘경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마켓나우

주가 예측, 믿을 것과 무시할 것



최정혁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

르면 지난 20년 동안 S&P500 지수 예측치는 실제 증가보다 평균 6.9% 높았다. 같은 기간 과대 예측을 한 횟수는 13회, 과소 예측은 7회였다.

이처럼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도 매년 말이면 금융회사들이 새해 주가지수를 예측하고 투자자는 그 수치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금융회사들에 주가지수 전망은 한 해 비즈니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 경제 및 위험자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대표 격인 S&P500 지수를 예측하고 이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과 기관투자자 등 고객과의 비

즈니스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점은 금융회사들이 대체로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투자자는 예측치라는 일종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접할 때 심리적 불안감을 덜게 된다. 온갖 변수와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투자의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들의 반복적인 예측 오류에서 나타나듯 정확한 단기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컨센서스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예측치를 사용해야 한다. 투자자가 더욱 중점을 두어 읽어야 할 것은 금융회사들이 ‘어떤 변수와 가정을 세워 예측치를 도출하는가’이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설정하는 거시경제 및 기업실적 변수와 그에 대한 가정은 한 해 동안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월가에서 큰 주목을 받는 연례행사 중 하나가 새해 S&P500 지수 예측이다. 매년 말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회사들이 S&P500 지수의 다음 해 연말 목표가를 발표하면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다. 2025년은 금융회사들이 중간값으로 6600을 예측하며 연간 12% 상승을 점치고 있다.

미국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의 예상 등락 범위를 발표한다. 2025년 예상 범위의 중간값은 2365~2950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가는 지난해 말의 2400포인트 정도를 최저점으로 보고, 여기서 최대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주가지수 예측 성적은 부진했다. 금융회사들은 2024년 S&P500 지수가 3%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3% 상승하며 마감을 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 2022년은 오차가 더 컸다. 연간 6% 상승 예측을 크게 밑돌며 19%나 하락한 것이다. 2022년은 예측 오차율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해로 기록되기도 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SHwang Realty featuring a broker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Includes text like '고객만족 17년!', '매매 / 리스 전문', and phone number '571-239-6054'.

Law firm advertisement for Kim Cheol-min, Potomac Law Group, PLLC. Features a portrait of the lawyer, contact information '703-973-8700',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Immigration and Business/Real Estate.



# “지금 개헌 안하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일 당할 것”

서울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전략원(전략원)이 ‘개헌’에 발 벗고 나섰다. 30여년간 한국정치를 연구해온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새 원장에 취임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택한 것이다.

“20년 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개헌 필요성이 절박하고 가능성도 커진 적이 없다”는 그는 “이번에도 개헌 없이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도 ‘윤석열의 비극’을 피할 길 없을 것”이라고 했다. “87년 체제”는 완벽히 종언을 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책임총리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강원장을 만났다.

**“뒤는 중국, 앞어진 한국… 정치가 문제**  
-서울대 핵심 싱크탱크 원장 취임 일성이 ‘개헌’인 배경은요.

“얼마 전 중국 선전(深圳)의 화웨이 공장을 방문했어요. 국가가 장기적인 목표 아래 유망한 기업을 밀어주는 게 확연히 충격에 받았습시다. 우리는 유망 산업 지원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장기 국가 과제 설정은 꿈도 못 꾸잖아요. 과거처럼 10~20년 뒤를 내다보며 국가를 기획하고 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나라가 활기를 잃고 젊은이들은 좌절한 지 오래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정치의 실종, 즉 ‘87년 체제’의 파산입니다. 마침 유홍립 서울대 총장의 권유로 전략원장을 맡게 됐는데, 설립 취지가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짜는 두뇌 집단이에요.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해소 등 연구해온 여러 아이템이 있지만, 그런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정치 시스템이 붕괴했으니 이것부터 고치자고 결심했어요. (고장 났다면 그 핵심은요?) 대통령제의 한계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대통령제의 한계라면요?

“87년 체제” 초기엔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했어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북방정책·하나회 수창·외환위기 극복을 통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죠. 경륜을 검증받은 이들이 대통령이 된 결과인데, 그 뒤 준비 안 되고 정치력도 부족한 이들의 집권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제의 실패가 분명해진 거죠. 길게는 노무현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됐고, 박근혜-문재인 윤석열은 명백히 실패한 대통령들이에요. 대통령이 국가의 자산에서 짐(부채)이 된 겁니다.”

-대통령제의 실패는 대통령 개인의 잘못 탓인가요, 제도 자체의 결함 탓인가요.  
“같이 가는 겁니다. 국민은 대통령



2022년 문을 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학본부 직할로 서울대 석학 수십명이 참여하는 핵심 싱크탱크다. 3대 원장에 취임한 강원택 교수는 “수명 다한 87년 헌법을 지금 개헌하지 않으면 나라의 생사가 위태로운 절체절명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경록 기자

에 강한 힘을 부여해 나라를 바꿔줄 걸 기대했는데, 대통령들은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니 사고가 난 거죠. 미국 대통령제는 달라요. 도널드 트럼프 집권으로 힘들어진 이들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외국이지 미국인들이 아니에요. 연방제 국가이고 헌법상 권력이 분산돼 국민 일상은 바뀔 게 적거든요. 반면 우리는 대통령 바뀌면 모든 게 바뀌니 잘못 뺏으면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우리 헌법 자체의 문제점은 뭔가요.

“미국을 건국한 국부들(Founding Fathers)은 권력 집중을 가장 경계해 삼권 분립이 확실한 헌법을 만들었어요. 반면 우리는 1948년 제헌 당시 그런 고민 없이 내각제에 가까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제 아니면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탓에 내각제가 가미된 혼합적 대통령제로 가게 됐죠. 그 뒤 박정희-전두환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굉장한 권한이 30년간 축적됐는데 87년에 그 엄청난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직선하는 방식으로 개헌한 거죠.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이게 문제죠.”

-재판을 5개나 받는 이재명 대표는 거리를 확보하는데 대통령은 구속된 현실을 보면 대통령은 힘없고 당 대표가 섰냐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87년 체제’ 붕괴엔 야당의 책임도 있어요. 여소야대 구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헌정 체제가 작

동한 건 야당이 자제해왔기 때문이에요. 정부를 견제해도 강제력 없는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는 데 그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요즘 야당은 25만원 지원금 등 자신들이 직접 입법을 하거나, 특정 예산을 제로로 만들고 탄핵을 30번 가까이 했거든요. 대통령 고유의 정책과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정권과 국회의 충돌을 ‘관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니 차기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지금 여당도 똑같이 할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이 과거와 달리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 된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끌어안지 못한 탓도 있지만, 야당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제의 특성은 임기의 고정성입니다. 5년 임기를 채워야 헌정이 유지돼요. 미국만 봐도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없어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상원에서 막았어요. 양원제란 견제 장치에다 야당의 자제도 작용한 거죠. 리처드 닉슨도 자진 사임한 거지, 탄핵당해 물러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탄핵소추를 당했으니 다음 대통령도 취임 당일부터 야권 세력이 탄핵하겠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자제할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 버티기 힘들어요.”

**“남미 짝 난 한국… 정치학자로 자괴감”**

-87년 체제가 완벽히 고장 난 징후는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라고 봐요. 문 정부는 탄핵당해 물러난 박근혜에 이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다 전전 대통령인 이명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적폐’란 명목으로 사법처리했잖아요. 보수 진영엔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 참기 어려운 거죠. ‘적폐’란 선악을 가르는 것이라 정치에선 금기인데 문 정부가 이걸 내세워 캠페인을 했으니 그 후유증으로 지금의 극단적인 정치가 굳어진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두 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가해자들을 끌어안고 통합의 정치를 한 결과 첫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정치적 후유증이 워낙 크다 보니 3년 전 대선에서 보수-진보 진영은 (윤석열-이재명 같은) 싸움꾼들을 내세웠고 박빙으로 승부가 갈린 바람에 정치가 더욱 극단화한 거죠.”

-민주화 체제 37년 만에 ‘계엄령 정치’가 튀어나온 데 놀란 이들이 많은데요.

“정치학계 석학인 후안 린츠 예일대 교수가 1990년 ‘대통령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이란 논문에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의 회가 다 정통성이 있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이 특징이라 극단적 대립구도가 되면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려는 위험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어요. 쿠데타가 빈발하는 남미를 보고 쓴 논문이 한국에 들어맞았으니 학자로서 창피하죠. 린츠의 결론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밖

에 없어요.”  
-구상 중인 개헌안 골자가 대통령 권한 분산인가요.

“그렇죠. 정책은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전담하되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져 의회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골자입니다. 여담인데 지금까지 장관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없어요. 전에는 장관이 뭐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대통령실이 바로 전화해서 간섭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그런 전화가 안 오니까 장관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려면 대통령 권력 분산이 필수죠.”

**“이재명·권영세, 개헌 포럼 초청 검토 중”**

-서울대 전략원에서 개헌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할 계획인가요.

“우선 전직 총리·국회의장·헌정회장·당 대표 등 10여 명을 초청해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란 타이틀로 포럼을 개최할 겁니다. 이재명·권영세 등 여야 대표들도 초청을 검토 중이에요. 이어 정치학자·헌법학자 세미나를 열고 바람직한 개헌안 윤곽을 모색할 계획인데, 개헌은 최대한 서둘러야 하므로 ‘권력 분산’에만 집중해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개헌 시점은요?) 대선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 해야 해요. 늦을수록 나라와 국민의 손해가 막심해지니까요.”

-개헌은 원래 1당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데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을 논의하면 대선 일정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헌법 체제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칩시다. 보수진영은 그날부터 대선 불복 운동을 벌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모든 힘을 다해 저항하겠죠. 민주당 정부가 수적 우세를 이용해 강경대응하면 3년 뒤 총선에선 야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탄핵 정국이 개시될 겁니다. 게다가 요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보면,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선 때 양자대결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결국 지금 가진 것 많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헌의 결단을 내린다면 국민은 이 대표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친명계 빼곤 개헌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더라고요. 내가 개헌 이야기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공감대가 큰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개헌해야 합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MOVE with 김경아 !!”**

**저의 전문 노하우로 집을 잘 팔고, 잘 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 설

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답게 계엄 진상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앞선 두 번의 기일(3. 4차 변론)과 달리 이날 재판(5차 변론)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던 전직 장성과 고위 공직자 세 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12.3 계엄 당시의 사실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민의 답답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나온 관련자 진술과 기존 증언 등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향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반박 논리가 추가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엇갈리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검찰 진술과 관련한 증언은 하지 않았다.

내란 혐의 부인에도 고위 관련자 증언 쌓여 법 기술자적 전략 대신 진실 규명 협조해야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 기회를 주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체포)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자신의 혐의와 관련 진술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사법적 판단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계엄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

한 상식적 근거는 쌓여 가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 등의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적시됐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싸다 정리하라”고 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어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광증근 전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선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시받은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통화 횟수가 다른 공소장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의 흠결은 지적해야겠지만, 내란 중요임무 중사 혐의로 구속된 부하들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마당에 민망한 변론이 아닐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을 가리키는 고위 장성과 공직자들의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그들이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이 정부의 엘리트라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진행될 현재와 범인의 재판에서 법 기술자의 강변보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스라엘이 딱 지금 우리 같았다



안헤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이스라엘이 딱 지금 우리 같았다. 텔아비브에서만 20만, 전국 50만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내타냐후 정부의 사법개혁(실은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2023년 3월 11일)를 벌이면, 이에 질세라 사법개혁에 찬성하는 20만 시위대가 내타냐후 지지 시위(2023년 7월)를 벌였다.

하루이틀 그러다 만 게 아니다. 내타냐후가 사법부 무력화에 나선 2023년 초부터 9개월 내내 양 진영이 이런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다 그해 10월 하마스에 침공당해 인질 250여 명이 끌려가고 나서 야비로소 시위를 멈췄다.

솔직히 그때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에 하루가 멀다 하고 “대규모 시위가 야기한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유력 기업과 인재·돈이 죄다 해외로 빠져나가 첨단기술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식의 경고성 기사와 인터뷰가 실리는 걸 보고 향후 이스라엘 경제가 살짝 궁핍했을 뿐이다. 실제로 그해 상반기에만 투자유치 금액이 70%나 감소했다. 돌이켜 보니, 약과였다. 경제가 뒷걸음질칠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전쟁으로 귀멸돼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하락했으니 말이다.

요즘 자꾸만 그때의 이스라엘이 떠올라 불길하다. 하마스 침공 직전까지 사법부를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이스라엘 사회를 양분했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진 순간 하마스가 공격했다”는 NYT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비판을 우리 정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국내 정치에 매몰돼 외부 위협 관련 군사·정보기관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상존하는 하마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반대파를 찍어내기 위한 내부 정쟁에만 몰두했다. 북한 위협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은 지금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의 계엄 발동과 탄핵 국민 와중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양 진영은 미국·중국에 뒤진 우리 AI 역량이나 국제정세는 몰라라 하고 대권 쟁취를 위한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이념적 성향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계엄으로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본 우리 경제에 더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 역량까지 갉아먹을 게 분명하다. 취임하자마자 관세 장벽을 쌓고 북한과 직거래 하려는 트럼프 정부로부터는 이미 소외당하고 있지 않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양측 모두 명분은 있었다. 사법개혁 반대파 주장처럼 뇌물수수나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내타냐후 총리가 본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개혁을 들고나온 측면이 있다. 동시에 “소수의 대법원 판사가 사법 체계를 위박력파하는 걸 고치는 게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찬성과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전부터 대법원 신뢰도(41%, 2021년 설문)가 그리 높지 않았

사법부 둘러싼 극한 사회 분열 안보 위협 대비 대신 정쟁 매몰 “갈등 속 약한 순간 공격당한다”

기 때문이다. 내타냐후 측은 이런 선량한 국민의 불만을 포착해 개인 비리로 재판받는 본인은 “박해받는 사람, 사법부는 ‘선출 권력을 방해해 국민 의지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세력’이라고 낙인찍었다. 그의 지지자들이 “투표에서 못 이기니 법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동조한 걸 보면 이런 선악 구도 프레임 짜기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셈이다. 아내 문제 등 여러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좌파 사법 카르텔” 운 운하며 현재와 대법원의 일부 편향된 판결에 불만을 품어 온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문제는 국가 최고 정치인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분열의 씨앗을 뿌려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면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줬다. 그렇다면 진영을 떠나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선택은 명확하지 않을까.

논설위원

중앙일보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oongAng Ilbo, including subscription rates, advertising rates, and address details.

중국은 AI 굴기, 한국은 AI 인재 유출에 의대 광풍까지

중국 스타트업 답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이후 중국의 강점과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대비시킨 국내 언론의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다. 본지의 ‘답시크 쇼크’ 시리즈는 중국의 AI 굴기(崛起)가 10년 전인 2014년 중국 정부 주도의 혁신창업 진흥정책에서 시작됐다고 짚었다. 답시크는 4700개 이상인 중국 AI 기업의 하나일 뿐이며, 현지에서 더 주목받고 실력을 키우는 기업이 많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증언은 두려울 정도다.

더 심각한 것은 인재 수급 문제다. 미국 시카고대 싱크탱크의 ‘글로벌 AI 인재 추적’에 따르면 2022년 상위 20%인 최고 수준 AI 연구자의 47%가 중국 출신이다. 2위 미국(18%)과 격차가 크다. 활동지 기준으로도 중국(28%)이 미국(42%) 못지않다. 이젠 중국도 젊은 AI 인재가 마음껏 뛰노는 대운동장이 됐다. 반면, 한국은 출신이나 활동지 기준 모두 2% 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 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우버가 서비스를 접은 몇 안 되는 나라이고 토종 모빌리티 혁신기업인 타다마저 문을 닫게 할 정도로 혁신기업에 가혹하다. AI·반도체·항공 등의 해외 기술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법무부가 2023년 도입한 ‘첨단 전문인력비자(E-7-S)’로 국내에 체류 중인 전문가가 38명뿐이라는 본지 취재 결과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우리 인재는 해외로 떠나보내고 해

외 인재는 연구 자율성과 인프라가 부족한 한국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국내 수급만 떼어놓고 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중국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파가 AI 굴기의 주역이다. 매년 공학 엔지니어 150만 명이 배출된다. 답시크 창업자 량원평의 고향인 중국 남부 광저우의 농촌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며 이공계 기술 천재를 꿈꾼다. “중국 영재의 절반은 칭화대에 있고, 칭화대 영재의 절반은 AI·양자정보·컴퓨터공학의 브레인 양성소인 야오반(姚班)에 있다”는 중국 현지의 자부심도 부럽다. 하지만 한국은 빛나간 의대 열풍 탓에 이공계 학과는 정원 채우기조차 힘든 지경이다.

어제 카카오가 오픈AI와 동맹을 맺고,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AI 3자 협력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강자와 국내 대기업의 협력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AI 생태계를 탄탄하게 꾸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인재 양성부터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제도과 인프라를 혁신 친화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의 꿈은 현실이 되기 힘들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가 새로이 출범하여 이에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

그 동안 저희가 일했던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를 믿고 여러 사안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VA, MD, DC 변호사 자격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이민 신청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VA, NY 변호사 자격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 2월 스페셜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툰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툰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툰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高貴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원의 기운, 원의 대량과 원의 대량 특성의 만남

산삼 배양근 녹용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양성/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위장 건강을 위한 필수품



medifree  
코팅식이섬유 **레벤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어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 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당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농심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양성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순도 100% 천연 황생제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용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용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시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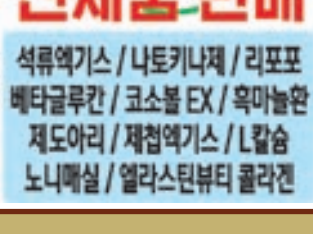
**클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클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백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니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늘한, 제도아리 / 재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수 함유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 광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February 5,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증되어 CN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올해 계획도 작심삼일? 6개월만 하면 '평생 습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연을 하겠다” “야채도 먹고 운동도 해서 체중을 줄이겠다”라고 가족과 근게 약속하고 책상에, 냉장고에 서약서를 써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 3일도 못 가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책하기 일쑤다. 가족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나는 왜 이럴까?’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예외적이다. 유명한 삼국지에서 나오는 장비도 유비와 제갈량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술버릇을 못하고 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유전자의 조합을 통해 고유의 구조와 생리 기능을 갖춘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신체와 학습하고 경험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반응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눈·귀·피부·코·입 등에 분포된 신경세포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대해 반응하도록 설계된 신경회로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 70%가 자동화된 행동이라는 연구도 있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듯, 이러한 행동은 생존을 위한 ‘이기적 유전자’와 반복 학습을 통해 검증되어 신경세포들과 시냅스에 의해 만들어진 뇌 회로에 따라 생각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습관의 결과이다.

예를 들면 평지를 걷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운전할 때 보이는 행동들이다. 이때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진다. 고통과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전자 생리, 신체 구조를 통해 적응해 왔다. 설탕과 지방이 많아 달고 기름진 음식을 맛있게 느끼는 것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도록 설계된 유전자 때문이다

다. 심지어 설탕을 탐닉하도록 엔도르핀도 분비된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 자동화된 행동에 거슬러 다른 행동을 할 경우 고통을 느낀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고 칭찬을 받을 행동이다.

**단 음식 맛있는 것도 생존 유전자 때문**  
새뮤얼 스마일스는 그 유명한 책 『자존론(Self-Help)』에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바로 행동이 달라지거나 습관이 바뀌지는 않는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처럼 갑자기 날 수 있는 것은 동화책에서나 가능하다. 날더라도 멀리 못 간다. 잘 만들어진 로봇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식했을 때 바로 설계된 동작으로

기존의 뇌세포-시냅스에 의한 본능적 판단-행동 바꾸는 일

건강 약속 지킨다는 의미

습관 되는데 **6개월**

성격까지 바뀌는 뇌 재구성되려면 **10년**

암 유발 표현형 돌연변이가 정상화되는데 **15~20년**

생존 의 성취나 봉사 등 다양한 욕구도 기여

바뀌는 것과 는 달리 백조처럼 우아하게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된 학습과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충분한 근육과 신경회로, 심폐기능이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도 바꿨어도 계속 잊어버린다. 생각나도록 계속 자극해야 한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 2면 ‘건강한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 경추·요추 자세 'C' 자 형태 유지, 시야 흐릿해지면 백내장 검사 필수

**연령대별 단골 질환 대처법** 해가 바뀌면 '건강관리'를 목표로 내세우는 이들이 많다. 매년 빠지지 않는 도전 과제다. 10대 청소년부터 80세 이상 노인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질환을 대비할 순 없다. 연령대별로 취약한 질환은 따로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질환 예방의 첫걸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환'(입원 진료 기준) 최근 3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과 대처법을 알아봤다. **신영경 기자**

**10~20대 위장염·결장염**  
10대와 20대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위장염과 결장염'이다. 위장염은 위·소장에, 결장염은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다. 음식을 통한 바이러스·세균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10대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다.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다가 로타·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위장염이 흔히 발병한다. 20대에선 과음과 폭식,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결장염이 잦다.



출처: GettyImagesBank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기면 복통·설사·구토·탈수 등이 관찰된다.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지만, 탈수 증상이 심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원인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면 평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손가락 사이사이는 물론 손등까지 골고루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는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함께 먹는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30~50대 추간관 장애**  
30대와 40대, 50대에 주로 나타나는 건 '추간관 장애'다. 추간관은 척추 사이에서 신체 움직임을 보존하며 충격을 완화하는 연결 조직이다.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척추에 압력이 가해지면 추간관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질환이 추간관 장애다. 흔히 디스크로 불리는 상태다. 증상이 목에서 발생하면 '경추 추간관 탈출증', 허리에서 발생하면 '요추 추간관 탈출증'으로 진단한다.

추간관 장애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척추 신경근을 압박해 목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추간관 장애는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를 받고도 참기 힘든 통증이 지속한다면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예방보다 좋은 치료는 없다. 추간관 장애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건강한 경추·요추는 'C'자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 앉는다.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볼 땐 받침대를 이용해 시선이 약 15도 위쪽으로

향하도록 조절한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는 피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경직된 근육을 이완한다.

**60~70대 백내장**  
백내장은 60대와 70대의 다빈도 질환 1위를 차지한다.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수정체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야가 흐릿해진다.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다.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시력 감퇴가 진행되기 때문에 노안으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백내장은 노안과 달리 돋보기를 써도 가까운 거리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안개 낀 듯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 안과를 방문해 백내장 검사를 받게 급선무다.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다. 다행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을 받으면 별다른 합병증 없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은 수술을 미루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과 당뇨병도 백내장의 주요 원인이다. 평소 혈당 관리에 힘쓰면서 전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야외에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을 보호한다. 특히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질환의 조기 발견

과 치료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80대 이상 알츠하이머성 치매**  
80대 다빈도 질환 1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다.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을 보인다. 가장 흔한 건 기억력 저하다.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서서히 뇌 신경세포가 죽어 나가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억은 저장하지 못한다. 증상이 더 악화하면 언어능력, 판단력 등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돼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치매는 예방이 최선이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게임으로도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 카드 맞추기나 숨은그림찾기, 단어 연결 퀴즈, 블록 쌓기와 같은 활동은 기억력과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즐기며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유대감을 쌓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위험 인자 관리도 필수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위험 인자는 뇌 손상이 2.4배로 가장 높고 음주가 2.2배, 운동 부족 1.8배, 흡연 1.6배, 비만 1.6배 순이다. 평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주 확인하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김문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장태훈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교수, 박정훈 인천힘찬종합병원 신경과 센터장

▶ 1면 '건강한 습관'에서 이어집니다  
생각을 바꿨으면 행동이 바뀌도록 해야 하고, 행동을 바꿨으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며, 습관을 바꿨으면 성격이 바뀔 때까지 해야 하고, 성격을 바꿨으면 운명이 달라지도록 해야 한다. 뇌의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이며 여기에 수십에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존재한다. 뇌세포와 시냅스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한 번

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습관이 되는 데는 6개월이 걸리고 성격이 바뀌려면 10년 동안 뇌가 재구성돼야 한다. 양을 유발하는 유전자 표현형의 돌연변이가 정상화하는 데는 15~20년이 걸린다. 물론 질질함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스마일스 "습관 바꾸면 운명이 달라져" 정보 처리 과정에서 본능적인 결정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감정 등의 경

험과 함께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종합적인 사고에 의해 판단과 선택의 의사결정을 한다. 바로 이 과정이 인간을 동물과 다른 생명체로 만든다. 건강해지고자 하는 이유가 생존만이 아니라, 학습·취업·승진 때문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 의한 사회적 요구 혹은 세상을 위한 봉사나 기여 욕구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욕구들도 운동·금연 등의 건강 습관과는 독립적으로 건강과 생

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 부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과 행동, 습관이 달라지게 한다. 더 높은 삶의 욕구와 목표가 우리의 건강을 견인하는 동기고 힘이다. 건강 습관을 바꾸는데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신이 만들어준 유전과 신체·생리의 한계를 넘어 시시포스처럼 포기하지 않고 신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로 다시 시작하자.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만들어지고 건강의 운명이 달라진다. 독자가 보다 높은 욕구를 향해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이기적 유전자에 의한 동물적 행동들에 의한 생존만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한다면 독자가 변화의 고통을 이겨내고 건강하도록 몸은 엔도르핀을 분비해서 응원할 것이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13.3%	42.9%	2.3%	0.0%
매우 좋음	양호	노화 시작	주의	나쁨	매우 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sciatca  
자골신경통

**허리**  
엷드리면 통증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발가락**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치명적 합병증 막는 뼈 건강관리

# 뼈 약해지는 겨울, 집안 조명 밝게 하고 외출 때 보호장구 필수

겨울은 뼈 건강이 시험대에 오르는 계절이다. 빙판길과 추운 날씨를 연령을 불문하고 뼈 부러지는 사고를 부른다. 젊은 층은 스키·스노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의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2022)에 따르면 사고의 대부분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되는 사고다. 노년층은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가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쉽다.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전상현 교수는 “추운 날씨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고 균형감각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여기에 실내 활동 증가와 일조량 감소로 비타민D 합성이 줄어들면서 뼈 건강이 더 약해진다. 비타민D는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이를 보충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쓴다.

### 낙상 세 번 중 두 번은 집에서 발생

62세 이모(여·서울 마포구)씨는 이달 초 택배 박스를 들다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다. 곧바로 왼쪽 고관절 부근이 아팠다. 혼자서는 걷기가 힘들어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가야 했다.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 2주 만에 병원을 찾았는데 X선 촬영에서 고관절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 엉덩이뼈와 넓적다리뼈를 잇는 목 부분에 달이났다. 바로 입원해 수술했다.

전 교수는 “고관절은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인데, 나이 들어 골다공증이 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기도 하다. 특히 경부 골절은 자연히 붙질 않는다”며 “감지 못하면 근육이 다 빠지고 폐렴·혈전증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하루빨리 견도록 48시간 내 수술이 치료 지침”이라고 했다. 이씨는 올해 2월에도 척추 압박 골절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압박 골절은 스펀지가

눌린 것처럼 척추뼈가 찌부러진 상태를 말한다. 그때도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그랬다. 전 교수는 “첫 번째 골절이 나타났을 때 골다공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재골절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환자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8%씩 증가했다. 부딪히고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사고의 3분의 2는 집 안에서 발생한다. 사소한 보이는 일상의 부주의가 골절로 이어지는 셈이다.

흔한 원인은 미끄러운 바닥과 어두운 조명, 나이와 함께 약해진 균형감각이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세탁기에 부딪혀 어깨·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미끄러져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엉덩방아를 찧는다. 손목·대퇴부가 골절된다. 거실 바닥에 놓여진 전기장판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밤중에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에 가다 넘어지는 사례도 흔하다.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뼈가 부러지는 ‘골절 도미노’에 빠지기 쉽다. 손목·척추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때 1년 이내에 또다시 뼈가 부러질 확률은 2~4배다.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나면 1~2년 사이 반대쪽 다리마저 부러지는 환자가 적지 않다. 골절 발생 후에도 여전히 뼈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다. 연간 수백만원 이상에 달하는 의료비도 만만찮은 부담이다.

### 과음과 나쁜 자세도 약골 만들어

남성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진다. 50세 이상 남성 두 명 중 한 명은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겪고 있다. 뱃속 칼슘·미네랄 등이 부족해지면서 뼈가 약해졌다는 의미다. 남성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전립샘암 치료다. 치료 과정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급격히 줄어 골밀도가 떨어진다. 하루에 술

을 석 잔 이상 마시면 알코올이 체내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 활동을 방해한다. 여성은 폐경기(50세 전후)를 기점으로 여성호르몬 분비가 확 줄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약골은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골절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쩡한 사람도 있다. 전 교수는 “과도한 다이어트와 나쁜 자세는 뼈 건강이 나빠지는 화근이다. 뼈 기초 체력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스포츠를 즐기다 발생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친다”고 했다.

스포츠 손상의 또 다른 원인은 과사용으로 인한 피로다. 너무 오래 걷거나 달리고, 발차기·레그프레스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과하게 하면 미세 골절이 생긴다. 전 교수는 “갑상샘·부갑상샘 질환, 당뇨·저체중 같은 문제가 있으면 젊은 층이든 뼈가 약해진다. 원인 파악을 위해 내분비내과와 협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든, 스포츠 손상이든 골절은 예방할 수 있다. 뼈 건강 척도인 골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는 호르몬·영양·신체 활동이다. 뼈를 튼튼히 하는 영양소인 비타민D는 햇빛을 쬐면 몸에서 생성된다.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에 하루 10분 이상 야외에서 활동하면 된다. 가볍게 걷는 산책에 더해 체중이 실리는 에어로빅·조깅 같은 운동을 하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처럼 뼈째 먹는 생선, 저지방·무지방 우유, 시래기나물을 챙기면 좋다.

이민영 기자



## 젊을 때 무리한 다이어트 피하고 중년부터 골밀도 검사를

뼈는 약해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자각 증상조차 없다. 뱃속을 채우던 성분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상태에 이른다.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전상현 교수는 “뼈의 양인 골량은 20~30대에 가장 높아진 뒤 서서히 감소한다”며 “젊을 때 뼈를 최대한 튼튼히 만들어 두면 나이 들어 골량이 줄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로 챙겨볼 뼈 건강 포인트를 살펴본다.

### 청소년기 영양·운동

뼈가 가장 잘 발달하는 시기다. 햇빛을 충분히 쬐며 뼈를 위아래로 자극하는 배구·축구·농구 같은 운동을 권한다. 운동할 땀 무릎·발목·손목·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는 습관도 들이는 게 좋다. 비만을 막기 위한 체중 관리도 필요하다. 저체중이면 뼈에 충분한 하중이 실리지 못한다. 나이 들면 골밀도 감소로 이어져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

### 청년기 바른 자세 실천

영양·운동으로 뼈 건강을 챙기기에 늦지 않은 나이이다.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30대 중반까지 뼈 양이 최고치에 이르게 채워진다. 칼슘 섭취가 특히나 적은 겨울에 추천하는 식품은 칼슘의 왕으로 불리는 시래기(무청)다. 시래기 요리엔 비타민D가 풍부한 말린 표고버섯 가루를 조미료로 활용하면 좋다. 햇빛에 말린 표고에는 생 표고보다 비타민D 함량이 5배가량 높아 칼슘 흡수를 돕는다.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는 것도 뼈 건강을 지킨다. 20~30대 환자는 40대 이상 환자보다 목뼈·허리뼈 변형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나쁜 자세 때문에 손상이 축적됐더라도 운

동하고 자세를 교정하면 회복이 빠르다. 디스크·관절·근육·인대의 재생력이 좋다.

### 중장년기 골밀도

#### 점수 알기

혈압·혈당처럼 뼈 건강을 점검해보는 숫자가 있다. 골밀도 점수다. 뼈가 튼튼한 사람과 비교해 내 뼈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민영 기자

▶ 6면 ‘골밀도 검사’로 이어집니다



##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 생체시계, 유전자와 단백질의 신비한 상호작용

갓난아기를 키우는 시절, 밤낮없이 깨어 보채는 신생아를 안고 잠을 설치는 날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시기에 주문처럼 외웠던 말이 있다. 바로 '백일의 기적'이다. 서너 시간을 간격으로 자다 깨다를 반복해 양육자를 녹초로 만들던 아기는, 신기하게도 생후 백일 전후로 일정한 수면-각성 패턴을 보이며 양육자에게 약간의 여유를 허락하기 때문이다.

## 생체시계를 찾아서

생물은 '백일의 기적'과 같은 수면-각성의 패턴뿐 아니라, 체온, 호르몬 농도, 혈압, 소화 및 대사 기능 등 특정 생명 현상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생물들은 열핏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체적인 생체시계(biological clock)의 주기성에 따라 나름의 질서정연한 삶을 꾸려나가는 중이다. 생체시계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하기에, 많은 이들이 몸속 여단가에 시계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고 여기곤 하지만, 실제로 생체시계란 특정한 순서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여러 개의 유전자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단백질들의 상호작용 현상이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방향 역시도 생체 시계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 활동의 주기,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을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하는 지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70년대, 초파리를 연구하던 연구진들은 초파리의 잠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내 '파리어드 유전자(Period gene)'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밤이 되면 초파리의 세포 속 파리어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이로 인해 세



포 내에는 이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PER 단백질이 축적된다. PER 단백질의 축적은 초파리를 잠들게 한다. 시간이 지나 PER 단백질이 계속 쌓여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타임리스 유전자(Timeless gene)의 스위치가 켜지며, 이들이 만들어낸 TIM 단백질이 PER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핵 속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이 신호가 되어 파리어드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지고, 만들어진 PER 단백질은 분해된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초파리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파리어드 유전자는 사람에게도 존재하며, 현재는 파리어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시계유전자(Clock gene), PER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더블타임 유전자(doubletime gene) 등을 비롯해 수백 가지에 달하는 생체시계 관련 유전자들이 밝혀진 상태다.

반복되는 생명현상, 시간생물학의 대상

## 체온·혈압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생체시계의 주기성에 따른 질서 많은 유전자 생체시계 구동 관여 조절센서, 변화 대응해 주기 조절

이처럼 '시간과 생명현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간생물학(chronobiology)이라 한다. 흥미롭게도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자식들을 태어나자마자 모조리 집어삼키는 비정한 아버지 크로노스(Cronos)와 같은 어원을 가진다. 크로노스의 끔찍한 포식 행동은, 그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칼로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했듯 그 역시도 친자식에 의해 몰락하리라는 신탁에 기인했으며, 결국 크로노스는 막내아들인 제우스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의

운명은 세상의 패권을 두고 대립하는 신들의 암투에서부터, 다이어트 중에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배꼽시계의 울림과 찰나의 생을 살아가는 초파리의 짧은 삶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촘촘하게 펼쳐져 있다.

시간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알려진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생체시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대표적 실험식물인 애기장대(Arabidopsis)의 경우, 전체 유전자(약 2만 5천개)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유전자가 일주기 리듬에 따라 발현량이 조절될 정도다.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 외에도 추가적인 유전자가 생체시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이토록 많은 유전자가 생체시계를 구동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주기적 반복 패턴이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낸다. 항상성 유지가 관건

생물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체는 체온 36.5°C, 혈중 pH 7.365을 유지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환경은 유동적이라 항상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동적인 환경도 주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일주기와 연주기를 예측하여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생물이 지닌 생체시계의 자체적인 주기성, 즉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만 생활해도 주기적으로 수면-각성 패턴을 보이는 것도 이미 자체적으로 내장된 주기 시스템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지구의 자전은 24시간이지만,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매일같이 달라지는 등 세부 변화는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생체시계에는 조절 센서가 있어 이에 따라 주기를 조절한다. 빛을 인지해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일조량의 변화를 감지해 개화 호르몬을 분비하며, 기온의 하강을 인식하고 지방 비축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다. 주기성을 갖지만 세부 변화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물이 역시 자체 주기성에 더해 센서를 통한 미세조절을 거둬들이는 정교한 생체시계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시간생물학은 변화무쌍하지만 주기적인 환경 속에서 역시나 변화에 대응한 주기성을 갖춘 생명체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며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갈 분야이다.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므로 말이다.

이은희 과학커뮤니케이터

## 병원리포트 아주대병원 박도양 교수팀

# 비타민D 부족하면 만성 비염 위험 21% 늘어... 햇빛 자주 쬐어야

고등어·연어 등 등푸른 생선도 도움  
연령 높을수록 수치 정기 체크해야

만성 비염이 있다면 체내 비타민D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만성 비염은 코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코막힘·콧물·재채기·가려움증 등이 12주 이상 지속하는 질환이다.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도양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만 40세 이상 1만 265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수치와 생활습관

(흡연·음주·운동) 및 신체 건강 상태(비만·고혈압 등)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만성 비염 환자군의 평균 비타민D 수치는 17.73ng/mL로, 비염이 없는 대상군의 수치(18.19ng/mL)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타민D 결핍이 있으면, 만성 비염 위험이 약 21%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타민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타민D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비염과 같은 염증을 완화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비타민D가 부족할 경우 자율 신경계 기능을 떨어뜨려 만성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만성 비염이 있는 중년 및 노년층의 경우 약 70%가 비타민D 결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염이 없는 대상군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타민D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비타민D는 일상에서 햇빛 노출 시간을 늘리거나 고등어·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노른자, 버섯 등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통해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

박도양 교수는 "비타민D 결핍과 만성 비염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정기적으로 비타민D 수치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영양학(Nutrients)에 '중년 및 노년층의 만성 비염과 비타민D 결핍의 연관성(Vitamin D Deficiency as a Contributing Factor to Chronic Rhinitis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 Epidemiological Study)'을 주제로 최근 게재됐다.

권선미 기자



출처: GettyImagesBank

# 채여혜 한의원

##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25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 손자녀 경제지원, 저축·채권·CD 등 다양

시니어 가운데 어린 손자녀를 위해 저축을 해 주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손자녀가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이를테면 대학 학비나 첫 주택 구입, 취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경제적 안전을 미리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손자녀에게 줄 저축과 자금 마련, 은퇴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손자녀를 위한 저축 방법

손자녀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적합한 계좌를 찾는 것이다. 저축 목적과 인출 유연성, 자금 증식 가능성 등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계좌가 존재한다.

### 1. 수탁 계좌 (Custodial Account)

UGMA(Uniform Gifts to Minors Act)와 UTMA(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계좌와 같은 수탁 계좌는 손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의 관리 아래 돈을 적립할 수 있다.

UGMA 계좌는 금융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UTMA 계좌는 유형과 무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수탁 계좌는 대부분의 대형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관리하는 수탁자는 손자녀를 위해 쓸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 2. 529 대학 저축 플랜 (529 College Savings Plan)

주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 마련 저축 계좌다. 저축액을 받을 수혜자는 1명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주로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킨더가든부터 12학년 사이의 학비와 직업 훈련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529 플랜에 있는 자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교육 비용으로 인출한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면세 혜택을 준다. 그러나 교육 목적 이외의 지출에 사용하면 세금과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탁 계좌와 다른 점은 수혜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손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조부모가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 3. 시리즈와 EE 시리즈 채권

연방재무부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축 채권이다. EE 시리즈 채권은 30년 동안 고정 금리를 제공한다. 재무부가 20년 안에 채권 가치 2배 증가를 보장한다.

I 시리즈 채권은 고정 이자율과 두 번 조정되는 물가 연동 이자율을 결합하여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일부 보호해 주는 특징이 있다.

두 채권 모두 개설 후 1년에서 30년 사이에 손자녀가 현금화할 수 있다. 단, 5년 이전에 현금화하면 3개월분의 이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재산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시니어가 손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저축과 채권, CD 등에서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학비 마련 '529 플랜' 학비 대출 상환도 사용 청소년 저축계좌, 손자녀와 공동 계좌 가능

### 4. CD(양도성 예금증서)

CD는 대부분의 은행과 신용조합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특정 기간 동안 보장된 수익률을 제공한다. 위험도 낮은 저축과 비교하면 높은 이자율로 증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CD에 2000달러를 투자하고 연이율 4.50%를 받는다면 만기 때 90달러의 이자를 벌 수 있다. 따라서 CD는 단기 목표로 손자녀를 위해 투자하기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인가가 없었지만 금리가 오른 지금은 고려해 볼만하다. 안전한 대신 조기 인출 시 벌금이 부과된다.

### 5. 청소년 저축 계좌 (Youth Savings Account)

보통 수수료가 낮거나 없다. 조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손자녀와 공동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손자녀에게 저축과 이자, 재정 책임 개념과 은행 거래, 자금 관리를 가르칠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은 작을 수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계좌를 찾을 수 있다.

## ▶손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

손자녀를 위한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고 실용적인 계좌를 선택하고 일관성 있게 모아 나가야 성공 확률을 높인다.

### 1. 목표 설정

손자녀에게 필요한 것과 본인의 재정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손자녀가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할 나이와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를 잘 파악해 전략을 짤다.

2. 정기적인 저축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저축 전략은 일관된 납입하는 것이다. 소액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힘으로 불어나게 된다.

3. 점진적으로 액수 늘리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면서 액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보너스나 수입 증가에 맞춰 액수를 늘릴 수 있다.

4. 투자 다각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 저축도 늘리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투자를 혼합하면 시장 변동성을 피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 가능성이 높아진다.

5. 검토와 조정  
저축 전략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여건이 바뀌면 계좌나 액수를 조정한다. 급여나 수익이 높아지거나 손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여기

에 해당한다.

## ▶은퇴 시 저축 요령

1. 소셜연금 혜택 최대화  
은퇴했거나 은퇴가 가까워졌다면 손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과 은퇴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은퇴 생활 유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저축 방법은 있다.

1. 소셜연금 혜택 극대화  
사회보장 혜택을 100% 수령 연령이나 그 이후로 연기하면 월 수령액이 증가한다. 조기 은퇴보다 소셜연금 소득이 증가하므로 여유 자금이 생기고 손자녀를 위한 저축액을 늘릴 수 있다.

2. 보험 계약 재검토  
나이가 들면서 보험 가입 필요성이 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고 절약한 돈을 손자녀를 위한 저축 계좌나 수탁 계좌로 돌릴 수 있다.

3. 세금 혜택 계좌 활용  
세금 혜택을 받는 로스 IRA 계좌를 이용하면 은퇴 후에도 자금 증식이 가능하다. 세금을 잘 조절해 인출하면 손자녀의 저축에 추가할 수 있다.

4. 유산 상속  
유산을 상속할 때 손자녀에게 주는 것을 고려한다. 유산의 일부를 손자녀가 상속받도록 하면 안정적인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원회 객원기자**

## ▶3번 '골밀도 검사'에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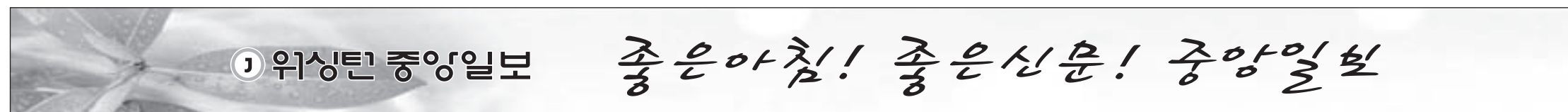
중년 이후엔 골량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므로 이 시기에 반드시 쟁겨야 한다.

골밀도 검사는 척추, 대퇴골(고관절), 허리뼈 부위의 뼈 밀도와 강도를 측정해 골절 위험을 예측한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 위험 인자는 ▶65세 이상 ▶50세 이상 여성 ▶조기 폐경 ▶골절 경험 ▶예전보다 키가 줄거나 허리가 굽은 증상이다. 이미 골절 경험이 있으면 재활 치료와 약물치료로 2차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

## 노년기 낙상 예방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는 길이다. 겨울에는 전기 난방기구의 전선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잦다.

낙상을 방지하려면 집 안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 바닥에 물건은 가급적 두지 말고, 실내를 늘 밝게 유지해 걸림물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침대 높이 조절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인다"며 "겨울철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빙판길을 피해 천천히 걷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열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301.231.7588 /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301.231.7588 / 301.231.7587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 5수 끝에 첫 '올해의 앨범상' 비욘세, 그라미 한 풀었다

'팝의 여왕' 비욘세가 드디어 그라미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수상이다. 2일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타킵 아레나에서 열린 '제67회 그라미 어워즈'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최우수 오디오북, 내레이션 및 스토리텔링 녹음'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고, 비틀스는 인공지능(AI)으로 존 레논의 목소리를 되살린 새 싱글 '나우 앤드 덴'으로 '베스트 록 퍼포먼스' 부문을 수상했다.

5수 끝에 '올해의 앨범상' 트로피를 받은 비욘세는 이날 시상식에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는 지난해 정규 8집 '카우보이 카터'를 통해 컨트리 장르에 도전하고, 흑인 여성 최초로 컨트리 앨범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려놓는 기록을 썼다. 비욘세는 그라미 어워즈 장르 부문에서도 '베스트 컨트리 앨범'을 받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이 장르에 받아주신 컨트리 아티스트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일리 사이러스가 피쳐링한 싱글 '11모스트 아이 원티드'로 '베스트 컨트리 듀오/그룹 퍼포먼스' 트로피도 추가해 그라미 3관왕에 올랐다.

1997년 데뷔한 그는 그라미 역대 최다 수상자(지난해 기준 32회), 역대 최다 후보 지명(99회) 기록을 써왔으나

가수 비욘세는 첫 '올해의 앨범상'을 거머쥐고 "많은 해가 흘러서야 받았다"고 말했다. 오른쪽으로는 '베스트 팝 보컬 앨범상'의 사브리나 카펜터와 디스크로 5관왕에 오른 캔드릭 라마. 존 레논의 아들 선은 '베스트 록 퍼포먼스'를 수상한 비틀스를 대표해 참석했다. [EPA-로이터·AP-연합뉴스]

**제67회 그라미 어워즈**  
**'베스트 컨트리 앨범' 등 3관왕 올라**  
**캔드릭 라마 '올해의 노래' 등 5관왕**  
**60년만에 후보 오른 비틀스도 수상**

'올해의 앨범상' 부문에선 네 차례나 좌절됐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남편인 제이지가 이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합하게 시인' 캔드릭 라마는 래퍼 드레이크를 겨냥한 디스크곡 '낫 라이크

어스'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를 비롯해 '베스트 랩 퍼포먼스' '베스트 트랩 송'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을 휩쓸며 5관왕에 올랐다. 그는 "내가 힘겹게 남긴 모든 곳을 사랑한다. 랩 뮤직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가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설들의 수상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향년 100세로 세상을 떠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유명 뮤지션들

과 협업한 녹음본 '평원의 마지막 일요일: 100주년 기념'으로 '최우수 오디오북, 내레이션 및 스토리텔링 녹음' 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엔 손자인 제이슨 카터가 참석해 "고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가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남기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인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미 그라미의 같은 부문에서 3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이 4번째 수상이다. 인공지능(AI)으로 존 레논의 목소

리를 되살려 화제가 됐던 비틀스의 새 싱글 '나우 앤드 덴'은 '베스트 록 퍼포먼스' 부문을 수상했다. 그라미 상을 수상한 최초의 AI와의 협업곡이자, 비틀스로서는 1965년 이후 60년 만에 그라미 후보로 올라 거둔 기록이다. 트로피 전달 행사에 참석한 존 레논의 아들인 선 오노 레논은 "비틀스는 역대 최고의 밴드다. 이들이 행했던 1960년대의 마법이 살아나 음악으로 평화와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2년 결성돼 현재까지 활동 중인 밴드 롤링스톤스는 2023년 10월 낸 앨범 '해크니 다이아몬즈'로 '베스트 록 앨범' 트로피를 받았다. 이 앨범은 18년만의 정규이자, 드러머 찰리 와즈가 세상을 떠난 후 낸 첫 음반으로 주목 받았다. 롤링스톤스의 그라미 수상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그라미 시상식에선 여성 아티스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베스트 라틴 팝 앨범'을 수상한 '라틴 퀸' 샤키라는 "힘든 여성들과 이 상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영향력' 부문엔 알리사 키스가 호명돼 "모든 여성 동료들을 응원한다. 목소리의 다양성을 목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지영 기자

## 가장 신성한 경복궁 편액 돌아왔다

왕 초상화 모시고 참배하던 '선원전' 크기 312x140cm, 일제강점기 때 헐려 일본경매 취소시키고 협상 끝 환수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이었던 경복궁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던 선원전의 편액이 사라진 지 약 100년 만에 일본에서 환수돼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3일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액(일종의 이름표, 현판)을 지난해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편액은 가로 312cm, 세로 140cm 크기로 옷칠(흑칠) 바탕에 '선원전' (璿源殿)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

선원전은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역대 왕들의 어진(御眞·임금의 초상화)을 봉안하고 왕이 직접 분향, 참배 등의 의례를 행하던 신성한 공간이다. 왕들이 거처한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에 각각 선원전이 있

었다. 선원은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중국 역사서 '구당서'(舊唐書)에서 왕실을 옥에 비유한 데서 유래했다. 국가유산청은 "각 궁궐의 선원전 건립 및 소실과 관련한 정황, 기록 등을 고려할 때 1868년 고종 당시 재건된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편액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선 왕조 최초로 1444년 창건된 경복궁 선원전은 임진왜란 때 전소됐다. 이후 경복궁 재건(1865~1868년)과 함께 1868년 다시 들어섰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재건된 경복궁 선원전 편액은 조선 후기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서승보(1814~1877)의 서체다. 이번 편액의 필획 등 서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승보의 글씨로 추정된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사용된 안료 분석 결과도 기존의 의뢰 기록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일본의 한 경매사가 해당 유물을 경매에 부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19세기 경복궁 선원전의 편액'이라는 유물 소개에 우리 측이 긴밀하게 움직여 경매를 취소시킨 뒤 소장자 쪽에 "조선 왕실 문화유산이니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협상 끝에 지난해 2월 국내에 환수됐다.

재건 당시 경복궁 선원전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는 권역에 위치했다. 1897년 고종이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비어 있다가 이후 경복궁 훼손 과정에서 헐렸다. 헐린 전각은 1932년 서울 장충동에 있던 박문사(博文寺)를 짓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문사는 조선총독부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절이다.

경매사 측은 선원전 편액이 일제강점기 초대 조선 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1852~1919)를 거쳐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액을 지난해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국가유산청]

일본에 옮겨온 것으로 소개했다. 데라우치는 귀향 당시 경복궁 건축물 일부를 이전해와 새 건물을 지었다고 알려지는데, 해당 건물이 태풍으로 파괴됐을 때 철거 작업을 한 직원이 선원전 편액을 보관했다는 설명이다.

경복궁 선원전 편액은 라이엇게임즈의 도움으로 고국 품으로 돌아온 7번째 유산이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맺은 이래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축책(竹冊)'(보물), '석가삼존도' 등의 환수를 도왔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이달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편액 실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게 된다. 박물관은 궁중현판 775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경복궁 복원 계획에 따르면 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2030년부터 해당 권역에 선원전 복원이 시작된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W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100% 준비하는 99 기대해 '뉴' 현진



류현진, KBO 복귀 첫 시즌 10승8패  
호주서 스프링캠프... 컨디션 최고조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서 새 출발  
“올해 30경기 등판·가을 야구 목표”



지난해 아쉬움을 잊고 호주 스프링캠프에서 착실히 몸을 만들고 있는 한화 류현진. [사진 한화 이글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류현진(38)은 요즘 싱글벙글하다. 겨우내 개인훈련을 잘한 덕분에 몸 상태가 아주 좋다. 의욕적인 후배들 모습도 최고참 에이스를 미소 짓게 한다. 최근 호주 멜버른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류현진은 “이번 캠프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책임감’인 것 같다”며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나와 (동기생인) 이재원, 주장 채은성 등 베테랑들이 으쌰으쌰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맘때쯤 류현진에게 소속팀이 없었다. 한화와 계약하기 전이라 서울에서 실내훈련만으로 몸을 만들었다.

올해는 다르다.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호주의 태양 밑 아래에서 손조롭게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첫 볼펜 피칭을 무사히 마쳤다. 처음이라 전력투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2월 23일)보다 23일 빨랐다.

류현진은 “투구 수는 30개였고, 직구 위주로 던졌다. 제구와 투구 밸런스가 모두 만족스러웠다”며 “일찍부터 야외에서 훈련하니 여러모로 좋은 것 같다. (바뀐) 새 유니폼을 입고 처음 볼펜 피칭을 해서 기분도 새로웠다”고 말했다. 그의 투구를 지켜본 한화 관계자들 반응도 같았다. 양상문 한화 투수코치는 “첫 피칭인데도 역시 투구 감각이 남달랐다. 류현진에게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라며 “지난해보다 훨씬 빨리 (몸이) 준비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손혁 한화 단장도 “투구 폼과 밸런스가 정말 좋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류현진은 명실상부한 한화의 기둥이다. 2012년까지 7년간 에이스로 활약하다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그는 지난 시즌 직전 11년 만에 친정팀 한화로 돌아왔다. 8년 총액 170억원에 사인해 44세까지 한화 마운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귀 첫해인 지난 시즌 10승 8패, 평균자책점 3.87, 12년 전처럼 팀 내 최다 이닝(158과 3분의 10이닝), 최다승, 최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그 정도 성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KBO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자동불판정시스템(ABS)에 적응하느라 시행착오를 겪었고, 빗맞은 안타를 잇달아 맞고 대량 실점하는 경기도 가끔 나왔다. 무엇보다 한화가 정규시즌 8위에 그쳐 또다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2025년은 류현진에게 ‘새 출발’의 진정한 원년이다. 한화의 창단 때부터 흠이었던 한발중합운동장 야구장을 떠나 신축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첫 시즌을 맞이한다.

류현진이 한화에서 스프링캠프에 풀타임 참가하는 것도 올해가 13년 만이다. 팀 내 최고참인 류현진은 에이스 외에 ‘정신적 리더’ 역할까지 소화하느라 분주하다.

캠프 시작 후 첫 휴식일에는 자유계약선수(FA)로 합류한 투수 엄상백과 내야수 심우준을 환영하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베테랑까지 모두 함께했다. 훈련장에서 문동주·김서현·조동욱·정우주·권민규 등 한화의 ‘내일’인 투수진이 보고 배우는 롤 모델이다.

류현진은 “후배들에게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한눈에도 ‘생각이 없다’는 느낌을 주거나 안일한 플레이를 하면, 그때만 따끔하게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마운드에서 한화의 ‘에이스’로서 잘 해내는 거다. 류현진은 “올해는 30경기 선발 등판이 개인 목표”라며 “30경기 정도 나가면 승수나 이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꾸준히 경기에 나가 선발 투수 몫을 해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또 하나. 한화 구단·선수·팬 모두의 염원인 ‘가을 야구’를 향해 달리는 거다. 류현진은 “일단 3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 물론 그보다 더 잘하면 더 좋다”며 웃었다.

배영은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 미구 한방병원  
New Hampshire Ave. EXIT 28A  
White Oak 도서관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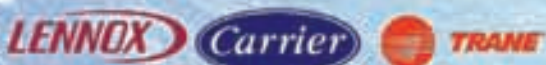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중앙일보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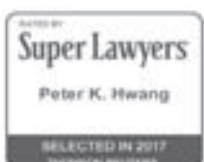
# 교통 사고

Sung Hwang & 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QS.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2월  
구  
인  
광  
고

###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보험

###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야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꼭지 교체</li> <li>◆싱크/디스포저</li> <li>◆워터히터/물새는것</li> <li>◆하수막힘/변기교체</li> <li>◆씽폼프 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루핑수리/거러교체</li> <li>◆사이드 리페어/창문</li> <li>◆데크 수리</li> <li>◆드라이얼/페인트</li> <li>◆파워워시</li> </ul>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함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문 상담기관

한국어 & 영어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상담 / 심리검사 제공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areFirst 보험 In-network

## Reynolds & Rubino Psychology Group, LLC

**571.396.6574** 전화 및 문자 가능  
10301 Democracy Lane, Suite 201  
Fairfax, VA 22030  
rrpsychgroup.com / info@rrpsychgroup.com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ake days off; 며칠 쉬다**

(Roger is talking to Jim at work~)

(로저가 짐과 직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Roger: I'm going to take two days off in March.  
로저: 3월에 이틀 쉴까 봐.  
Jim: Oh? What days?  
짐: 그래? 무슨 날에?  
Roger: Friday, March 21st and Monday, March 24th.  
로저: 3월 21일 금요일하고 3월 24일 월요일.  
Jim: What are you going to do?  
짐: 뭐 할 건데?  
Roger: My friend Daniel is coming into town from

Seattle to visit.  
로저: 친구 대니얼이 날 보러 시애틀에서 여기로 와.  
Jim: You've known each other a long time right?  
짐: 서로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지 그렇지?  
Roger: That's right. We've been friends for thirty years. We go way back.  
로저: 맞아. 30년 친구야.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  
Jim: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he's here?  
짐: 친구가 여기로 오면 뭐 할 거야.

Roger: Like me he loves jazz so I'm going to take him to some jazz clubs.  
로저: 대니얼도 나처럼 재즈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재즈 클럽을 좀 데리고 가려고.  
Jim: I hear there are some good jazz clubs in Seattle too.  
짐: 시애틀에도 괜찮은 재즈 클럽이 좀 있더라.

▶ come into town: 일이나 여행으로 어떤 도시를 방문하다.  
"My sister is coming into town next week." (다음주에 누이가 방문해.)  
▶ (we) go way back: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다.  
"Jim and I go way back. We first met each other in 1980."  
(짐과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1980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 이루는 각. 90도  
(5)빨리 달리기를 겨룬. 토기와 거북이의 ~ (6) 개인의 가정에서 전용하는 자동차 (7)협한 산길에서 바위 같은 것을 안고 간신히 돌아가게 된 곳. ←자들이 (8)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우는 것 (9)야구에서, 이루와 삼루 사이를 지키는 내야수 (11)옷의 원료가 되는 천 (13)소금물에 담가 익힌 무김치 (15)겉치마가 부풀어 오르게 보이려고 치마 속에 입힌 통치마 (16)농악대에서 팽과리를 치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 (17)통나무를 길게 잘라서 쪼갠 땔나무 (18)산이나 들에 쌓여 있는 풀무더기 (21)버스나 열차가 머무르고 승객이 타고 내리조 (24)크기 등을 늘여서 크게 함. 사진을 복사해서 ~하다 (25)소총이나 권총에서 총알을 발사하게 하는 장치 (27)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별 (28)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안목 (29)길게 얼어붙어 매달린 얼음 (30)공기의 주성분이면서 맛과 빛깔과 냄새가 없는 물질. 동식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체 (31)돈을 쓰거나 벌거나 모으는 재미.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벌써 ~을 알

면 안 된다며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가져가셨다

**세로열쇠**

(2)빨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이나 재주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없음 (3)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름 (4)얼굴을 감고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바르는, 액체로 된 화장품 (5)공경은 하지만 가까이하지는 않음 (8)오래되고 희귀한 여러 가지 기구나 예술품 (10)벽돌, 기왓장, 송판 따위를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순 (12)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즉위년을 기원으로 한 연호 (14)아닌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큰일이 자기 앞에 떨어지고 보니 ~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어떻게 하리라고 미리 정한 것이 없음 (18)돌로 만든 절구 (19)담력은 크게 가지되 주의는 세심해야 함. 문장을 지을 때의 마음가짐 (20)코끼리의 엄니. 위턱에 나서 밖으로 뻗처럼 길게 뻗어 있다 (22)셈할 것을 빼고 도로 내어 주는 나머지 돈 (23)이루 이상을 진투할 수 있는 안타 (25)바둑판 모양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을 그린 종이 (26)수갑

**스도쿠**

6	5				7			
			9	5			6	3
4	7			1		9		5
		8		9	5			2
7							4	
		3				6		1
8							1	9
			6		1	2	3	
							8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ob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5				7			
			9	5			6	3
4	7			1		9		5
		8		9	5			2
7							4	
		3				6		1
8							1	9
			6		1	2	3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구인  
 아침죽&양식국  
 딜리버리겸 주방헬퍼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대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중풍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 "이젠 웃을 수 있어요"**  
 성민 산삼 한방 병원  
 'K-한약' 중풍 치료 대표 사례  
 "중풍은 못 고치는 불치병이냐"  
 "중풍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혀가 안 움직여 말도 못 했는데 두 달 여 치료 만에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LA 한인타운 소재 '성민 산삼 한방 병원(대표 서영수 한의학 박사)'에서 중풍 치료를 받고 있는 델휘노 고메즈(51세)씨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한다. 델휘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잠 자려 침대 위에 앉았다가 갑자기 중풍 이 왔다. 911을 불러 카이저 병원으로 이송돼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6개월이 지나서야 집 근처를 지팡이 없이 의지해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그에게 한 한인이 성민 산삼 한방 병원 명함을 건넸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델휘노 씨는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가는 구안와사와 함께 손발 이 오그라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서영수 박사는 "중풍은 바람을 맞았 다는 뜻으로 대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 지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비유한 것 이다. 중풍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침, 2침, 3침, 4 부황, 5지압, 6교정을 통해 중풍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델휘노 씨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틀어진 몸이 반듯하게 되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어눌했던 발음도 또렷해졌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균형을 잡고 빠르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서 박사는 "중풍 치료를 위해서는 어깨부터 팔 손가락 다리 등 막혀있는 마 디마디를 뚫어줘야 한다. 침과 뜸을 병행해 기혈의 순환을 극대화하고 어 께나 이상근(영덩이)에서는 혈관 내 존재하는 혈전을 뽑아내야 한다. 이어 심혈관을 치료하는 금옥단과 모든 위 장병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처방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풍은 뇌의 병변으로 기혈의 순환과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보강을 통해 증상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줄이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반신 또는 한쪽 손가락이 힘이 없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거나, 종종 손 발의 저림을 느낀다면 보다 철저한 건 강관리를 통해 중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의암침법과 6단계 치료를 통해 집중적인 중풍 치료를 제공하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은 LA 한인타운 호버트 길 에 위치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문의: (213)385-3304  
 ▶ 주소: 809S, Hobart Blvd, Los Angeles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뻐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소매·도매 민물장어 판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당신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  
**EB-3 비자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 닭공장, 생선공장 등 ]**  
**자격 조건** 유학생 포함 합법 신분 소지자, 학력, 경력 및 영어 성적 무관, 건강하며 범죄기록 없는 자. 누구나 지원 가능.  
 웹사이트 : www.worldwidecompass.com  
 전화문의 : 213-788-8376 (엘에이), 470-223-3979 (아틀랜타)  
 이메일 문의 : kseri@worldwidecompass.com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